



# “아무리 힘들어도 결코 ‘꿈’을 팔진 않겠습니다”

가능성을 희망으로,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숨 가쁘게 달려 온 인천

인천은 예기치 못한 대내외적인 경제 상황으로 인해  
지금, 잠시 숨고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천의 에너지는 앞으로 많은 걸 계속 이뤄낼 것입니다.  
시민과 함께라면 어떠한 난관도 헤쳐 나갈 수 있습니다.

인천시는 건전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보유 자산을 팔고, 살림을 아끼며  
투자 유치를 위해 발 벗고 나설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어도 결코 ‘꿈’을 팔진 않겠습니다.  
꿈이 있는 한 좌절은 없습니다.  
희망이 있는 한 극복할 수 있습니다.

거친 파도는 강한 사공을 만듭니다.  
한번 움츠린 힘으로 두 배 이상 뛰어가겠습니다.  
시민과 함께라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인천의 비상은 다시 시작됩니다.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

# 인천 굿모닝

Good Morning INCHEON

2012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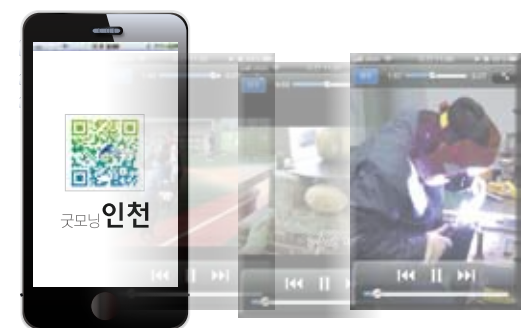




**발행처** 인천광역시  
**발행일** 2012년 7월 1일  
**발행인** 인천광역시장  
**편집인** 허종식(대변인)  
**편집장** 유동현(미디어팀장) twitter.com/ihappyou  
**취재** 편집위원 이용남 twitter.com/youna1488  
 편집위원 정경숙 twitter.com/bluelou7  
 편집위원 김윤경 twitter.com/ice3333  
**사진** 자유사진가 김보섭 · 김성환 · 홍승훈 · 안영우  
**행정간행물 등록번호** 62800000-84900-42-81  
**디자인 & 인쇄** 성공디자인(주) T. 032.881.9441

굿모닝인천은 [goodmorning.incheon.go.kr](http://goodmorning.incheon.go.kr)과  
 '인천시미디어' 앱, 소셜웹([social.incheon.go.kr](http://social.incheon.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은 허락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인천광역시의 입장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굿모닝인천**은 무료로 배포합니다.  
**구독문의** T.032.440.8306  
 (해외에 있는 친지에게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 〈굿모닝인천〉의 못 다한 이야기, 동영상으로 보세요

시정소식지 〈굿모닝인천〉이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관련 기사의 취재 영상부터 뒷이야기까지 눈앞에 생생하게!  
 종이매체에서 디지털매체로, 새로운 세상이 펼쳐집니다.

**이용방법** 스마트폰으로 페이지 상단의 QR 코드 촬영  
 스마트폰인 경우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 〈인천시미디어〉앱을,  
 태블릿 PC인 경우 〈굿모닝인천〉앱을 다운로드 후 실행  
 (사진 더보기 기능은 태블릿 PC에서만 가능)



06



22



28



26



36



12

# Contents

04 **Communication** 인천, 아름답고 살기 좋아 외

06 **여름 이야기 I** 극지연구소

12 **여름 이야기 II** 백아도

16 연평도

20 백령도 & 대청도

22 경인 아라뱃길 섬 여행

26 강화도

28 섬에서 캠핑

32 **여름 이야기 III** 북강스

34 **여름 이야기 IV** 펜타포트락페스티벌

36 **민선5기 제2주년 특집** 시장과 대학생 기자들의 청춘간담회

06 **여름 이야기 I** / 극지연구소  
 세상의 끝에서 미래를 열어간다 극지연구소

극지(極地)는 '위도가 매우 높은 지역'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극지 연구는 뒤늦게 뛰어든 후발 국가이지만 그 속도는 그 어느 나라 보다도 빠르다. 그 중심에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자리한 극지연구소가 있다.

12 **여름 이야기 II** / 백아도  
 쉬 닿을 수 없어, 마음을 붙잡는 섬

덕적도 바다에는 굴업도, 문갑도, 울도, 백아도가 보석처럼 뿌려져 있다. 그 가운데 이미 세상에 들려버린 섬도 있지만 아직 아름다움을 비밀스레 숨기고 있는 섬도 있다. 덕적도 남서쪽 꼬트머리에 오롯이 핀 백아도가 그렇다.

36 **민선5기 제2주년 특집 II** / 시장과 대학생 기자들의 청춘간담회  
 '젊음의 열정' 세계로 펼쳐라

우리는 민선5기 제2주년을 맞아 '인천시장과 대학생기자들과 청춘간담회'를 가졌다. 송영길 시장과 대학생 기자들이 인천의 재정위기, 청년취업 및 창업, 젊은이들의 고민거리를 함께 나누며 서로의 생각을 모으는 자리였다.



### Cover Story

아이들은 금방 잊는다. 어찌 보면 그게 '축복'이다. 연평도가 공포에 휩싸였을 때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이는 아이들이다. 그러나 아이들은 잘 견뎠다. 해변에서 물수제비를 뜬다... 참 대견스럽다.

연평도 구리동해변 · 사진 홍승훈



## 인천과 통(通) 하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과

손을 마주잡고 눈빛을 나누며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인천시 대표 미디어와 SNS에서 우리 만나요.

### 인천시 미디어

시정소식지 **굿모닝인천** (goodmorning.incheon.go.kr)

인터넷방송 **민트TV** (tv.incheon.go.kr)

인터넷신문 **I – View** (enews.incheon.go.kr)

스마트폰 앱 **인천시 미디어** (smart.incheon.go.kr)

### 인천시 SNS

**소셜웹** (social.incheon.go.kr)

**블로그** (blog.naver.com/flyic)

**트위터** (twitter.com/smartincheon)

**미투데이** (me2day.net/incheon4u)

**페이스북** (facebook.com/visionincheon)

### 독자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인천에 대한 생각과 인천의 발전을 위한 제언 등을 자유롭게 적어 보내주세요.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문화상품권 1만원권 1장)을 드립니다.

### 보내실 곳

우편번호 405-750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 대변인실(굿모닝인천)  
독자마당 담당자 앞(☎ 032-440-8305)  
홈페이지(goodmorning.incheon.go.kr)로도 받습니다.  
마감은 매월 20일까지입니다.  
응모하는 분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접수됩니다.

### 아라뱃길 여행에서 <굿모닝인천> 취재팀을 만났어요

경인 아라뱃길 타고 인천의 섬 덕적으로 여행을 갔었습니다. 가는 길에 반갑게도 <굿모닝인천> 취재진을 만났지요. 매표지를 지날 때 나는 악취만 시정하면, 한강에서 서해로 이어지는 관광의 관문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뱃길을 따라 이어진 자전거도로를 달릴 생각입니다. 아, 인천의 섬 덕적도 정말 좋았답니다. 많은 이들이 인천 섬의 아름다움을 알았으면 합니다.

\_ 문수남 서울시 동대문구

### 한국을 세계에 널리 알리길

<굿모닝인천>에서 '93일간의 꿈꾸는 바다이야기, 여수엑스포' 기사를 재밌게 읽어보았습니다. 해양강국의 꿈을 펼치고 세계인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넓혀서 고무적입니다. 인천에서도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여는 것으로 압니다. 꼭 성공적으로 개최해서 한국의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드높이는 데 기여하길 바랍니다.

\_ 손민 서울시 구로구

### 수인선 개통 기대되요

<굿모닝인천>에서 수인선에 관한 기사를 유익하게 읽었습니다. 안 그래도 안산에 사는 친구가 있어서 관심이 많았는데 <굿모닝인천>에서 소개해주니 많이 반갑더라고요. 앞으로 수인선 타고 친구를 더 자주 만날 수 있을 것 같네요. 다음에는 공항철도에 관한 기사를 실어주면 어떨까요? 전에도 <굿모닝인천>에서 보긴 했지만 공항철도에 대해 다시 한번 자세하게 알고 싶어요.

\_ 송지혜 계양구 병방동

### 30년 살아도 몰랐던 인천이 가까이

인천에 사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인천에 30년을 살았어도 인천에 대해 문외한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천 길잡이 <굿모닝인천>을 만나고부터 인천을 마음으로 이해하고 더 가까이 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인천을 제2의 고향이라고 생각하고 인천을 아끼고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사랑해요 인천, 사랑해요 <굿모닝인천>

\_ 백옥향 중구 선화동

### <굿모닝인천>따라 전해 오는 고향소식

영어의 몸이 되어 있으나 용기를 내어 편지를 드립니다. 저는 지금 청주에 있습니다. 전에 인천에 있을 때는 쉽게 <굿모닝인천>을 접할 수 있었는데, 타지에 수감되어 있다 보니 쉽지가 않네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이런 걸까요? 여기서 지역에서 발행하는 신문도 보기가 쉽지 않네요. <굿모닝인천>을 통해 인천 소식을 접하고 싶습니다. 고향 인천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며 글을 올립니다.

\_ 박○○ 충북 청주시

### 인천 땅에서 인천을 마음에 담고 파

<굿모닝인천>의 '축제야 반갑다, 인천이 들썩들썩' 기사를 재밌게 읽었습니다. 여러 가지 축제로 인천이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서울에서도 아이들 손잡고 가보고 싶네요. 이웃 도시이지만 모르는 것이 많네요. 직접 가서 느끼고 체험하며 마음에 인천을 담고 싶습니다.

\_ 이선영 서울시 영등포구

### 인천, 참 아름답고 살기 좋아

<굿모닝인천>에 나온 '그 섬에선 바람이 길을 안내한다'라는 무의도 섬 이야기를 잘 보았습니다. 인천에 살면서 섬에 관한 기사를 접할 때마다 '인천은 참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곳이구나'하고 새삼 느낍니다. 다음에는 산 좋고 물 좋은 인천 곳곳으로 여행 다닐 수 있도록 트레킹 코스를 함께 알려주면 어떨까요? 사람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좋은 이야기 전해주세요.

\_ 김명수 연수구 송도동

### 고향과 인연 이어주는 <굿모닝인천>

인천을 떠난 지 오래지만 <굿모닝인천>과 인연을 맺은 지 벌써 여러 해. <굿모닝인천>은 주요 시정부터 관광, 문화까지 시민은 물론 타시도민에게 유용한 정보가 알차게 실려 있습니다. 책 한권으로 인천의 발전상과 살아가는 이야기를 알 수 있지요. 앞으로도 반가운 이야기 많이 전해주세요. <굿모닝인천> 편집팀 파이팅!

\_ 박찬용 부천시 심곡본1동

## @Bulloger

시민께서 송영길 시장 트위터(@bulloger)를 통해 문의한 것에 대한 해당 부서의 답변입니다.



**@Bulloger** 인천시 수의사회 보호소에 봉사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사료에서 구더기가 나오고 아이들이 사는 바닥에는 쥐가 썩어가요!

시 축정팀장과 담당자가 현장으로 가 시정토록 조치했습니다. 또한 보호소 내 시설·기구 청결유지, 질병 확산 방지 및 운동장 마사토 교환, 그늘 막 설치 등을 1개월 내 이행하도록 했습니다. 시에서는 관찰 구청과 합동으로 관내 동물보호소 운영 상태를 수시로 확인 지도·점검해 동물 보호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Bulloger** 지하철 2호선이 2014년 이후에 개통된다는 소문이 있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우리시 재정위기와 관련해 시정 전반에 걸친 극복대책이 마련(2012.5.30일 발표)됐으며,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 부득이하게 인천 도시철도2호선 완공시기를 전 구간 2016년으로 연장하게 됐습니다. 공사연기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ulloger** 송도해수욕장이 문을 닫아 안타깝습니다. 잘 발전시키면 인천의 대표적인 관광상품이 될 텐데요.

송도 해수욕장은 도심 체류형 관광단지로 조성합니다. 해수욕장을 포함한 관광호텔 등은 2014년 말 개장 예정이며, 자동차 테마파크 등 전체 관광단지는 2018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Bulloger** 안녕하세요. 사장님을 지지하는 인천 시민입니다. 내년에 유치원 원비 지원을 해주나요? 아내가 올해 둘째를 낳고 육아휴직을 계획하고 있어 궁금해 합니다.

어린이집, 유치원에 다니는 만4세~5세 아동은 가구소득과 상관없이 정부 보육단가의 100%를 지원하고, 만3세(2008년생)는 가구소득 하위 70%(4인 기준 524만원)에 대해 정부 보육단가의 10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에는 모든 연령(만0~5세)에 대해 가구소득과 상관없이 무상보육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 사람을 찾아주세요



**이름** 이경준(당시 만 49세, 남)  
**발생일자** 2012년 5월 17일(목)  
**발생장소** 남동구 고잔동  
**신체특징** 170cm, 70kg, 지적장애2급, 보통 체격, 흑발 스포츠형  
**제보처** 어린이재단 실종아동전문기관  
02-777-0182  
www.missingchild.or.kr





# 세상의 끝에서 미래를 연다

## 극지연구소

극지(極地)는 '위도가 매우 높은 지역'을 말한다. 사전적인 말보다는 달이나 화성처럼 기온, 생식 등 환경이 극한 상황에 처한, 이 세상 끝에 있는 땅의 의미가 더 가깝게 다가온다. 과거의 극지가 단순한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정복의 대상이었다면 현재의 극지는 우리의 실생활, 더 나아가 인류의 생존과 밀접하게 연결된 연구의 대상이 됐다. 우리나라의 극지 연구는 세계 극지탐험 역사에 비해 매우 짧다. 비록 뒤늦게 뛰어 든 후발 국가이지만 그 속도는 그 어느 나라 보다는 빠르다. 1988년 남극세종과학기지, 2002년 북극다산과학기지 그리고 2009년 극지의 바다 위를 누빌 쇄빙연구선 '아라온'을 만들었다. 그 중심에는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자리한 극지연구소가 있다.

글. 유동현\_본지 편집장 사진. 극지연구소 제공





#### 북극과 남극 개관

북극		남극
유라시아와 북아메리카 대륙, 이들로 둘러싸인 바다 (1천200만km <sup>2</sup> )	형태	남방양으로 둘러싸인 거대한 대륙 (1천360만km <sup>2</sup> )
-16~6℃ (관측 최저 온도 : -71.6℃)	연평균 기온	-40~0℃ (관측 최저 온도 : -89.2℃)
북극곰, 여우, 순록, 고래 등	대표 생물	펭귄, 크릴, 물개, 고래 등
공해를 제외한 전 지역에 소유권이 있음	소유권	남극조약에 의해 관리 (영유권 인정 보류)
지구 환경변화 연구 / 주요 어장 / 대규모 에너지자원 매장 / 북극항로	연구 가치	인간에 의한 개발이 이루어 지지 않은 지구상 마지막 대륙 / 지구 환경변화 연구

#### 빙산 아래 첨단과학이 숨어 있다

우리나라의 남극 연구는 1978년 남빙양 크릴조업을 시작으로 1988년 남극반도 킹조지 섬에 세종과학기지 건설을 계기로 본격화됐다.

남극은 대기권, 지권, 수권, 빙권, 생물권 등 기초과학을 육성할 수 있는 천연의 과학 실험장이다. 남극의 빙하는 과거 지구의 기록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어 미래를 예측할 자료가 어느 곳보다 많다. 퇴적물과 빙하층에는 과거에 일어났던 지구 환경, 생태계 변화의 흔적이 그대로 간직돼 있어 이를 복원하면 이상 기후 현상에 대한 원인 규명과 미래기후를 예측해 대비할 수 있다. 이렇듯 남극은 지구의 과거 일기장이며 인류 미래를 준비하는 최전선이다.

남극에는 우리나라에 부족한 막대한 지하자원과 생물자원, 수산

자원이 있다. 세종기지 인근 지역만 해도 한국이 300~400년 가량 쓸 수 있는 가스층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남극 생명체들이 영하의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형성하는 결빙 방지 물질, 저온 효소, 자외선 피해 완화 물질 등도 산업적으로 응용할 수 있어 경제적 가치가 높다.

노르웨이 탐험가 아문센이 남극점을 정복한 지 100년이 지난 지금, 남극대륙은 자원 확보와 극지 연구를 겨냥한 각국의 총성 없는 전쟁이 끝도 없이 펼쳐지고 있다. 중국의 1.4배에 이르는 거대한 '얼음 대륙'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남극조약에 따라 각국의 영토권 주장은 유예됐는데도 현재 미국, 영국, 일본, 중국 등을 비롯한 총 29개 국가가 40개의 상주 과학기지를 운영하고 있다. 겨울에는 1천여 명, 여름에는 무려 4천여 명이 북적인다.

#### 대한민국 미래의 영토, 그곳에 있다

우리나라는 1986년 11월 남극조약에 가입한 후 1988년 2월 남극반도 킹조지 섬(62°13'S, 58°47'W)에 세종과학기지를 건설했다. 연 100명의 하계연구단은 남극의 여름에만 기지에 머물면서 연구하고 연 17명의 월동연구단은 1년간 머물면서 기지를 안전하게 유지 관리하며 상시 연구 활동을 벌이고 있다.

세종기지에 이어 남극대륙에 위치한 테라노바만 연안에 2014년까지 연면적 4천458㎡, 15개 동 규모의 장보고기지가 들어선다. 남극점과 1천700km 떨어진 남위 74도에 세워질 이 기지는 남위 62도에 위치한 세종과학기지의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심도 있는 남극 연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 각국의 남극기지들이 동남극에 몰려 있는 것과 달리 장보고기지는 동남극과 서남극의 경

계 지점에 건설될 예정이다. 상대적으로 덜 진행된 서남극 연구의 교두보가 될 수 있다.

영하 40도의 혹한과 초속 60m의 강풍이 불어대는 극한의 땅이지만 그만큼 연구 가치는 크다. 빙하 시추와 운석 탐사기술 개발과 함께 우주, 천문, 고층 대기 분야에서 융복합을 연구해 남극대륙 기반 연구가 크게 발전될 것이다.

인근에는 꽁꽁 얼어붙은 땅 위의 빙판에 길이 3~4km, 너비 70m 가량의 이른바 '얼음 활주로'를 만든다. 영하 40~50도를 오가는 남극대륙에 비행장이 들어서면 극지 탐사와 연구에 필요한 각종 보급품과 유류 수송뿐 아니라 일반인을 태운 중형 전세기도 뜨고 내릴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남극 킹조지섬에 위치한 세종기지는 쇠빙연구선인 아라온호를 통해 보급품과 유류를 수송했고 항공편은





전적으로 다른 나라의 비행장에 의존해 왔다.

장보고기지가 완공되면 한국은 남극에 2개 이상의 기지를 보유하는 9번째 국가 반열에 오른다. 2개의 상주 기지를 보유하게 되는 것은 향후 영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다지는 셈이다. 남극에서의 영토권은 미래 자원 부국으로 가는 열쇠가 될 수 있다.

### 극지연구에 관한한 우리는 강대국이다

북극다산과학기지는 2002년 북극 노르웨이령 스피츠베르겐 섬 니알슨(78°55'N, 11°56'E)에 건설됐다. 현재 기지 관리를 위한 상주 인원은 없으며 연 60여 명의 연구원들이 연구 목적상 원하는 기간만 체류하며 현장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다산과학기지에서 는 자동기상관측시스템, 온실기체, 에어로졸 등 대기측정을 지속

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극한지 유용 생물자원 연구 등을 하고 있다. 겨울의 한파, 여름의 폭염, 폭우, 태풍 등 한반도를 비롯한 북반구 기후가 급격히 변하고 있어 북극권에서의 환경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측 및 미래의 변화에 대한 예측 연구가 더욱 더 필요하다.

북극권은 영토권 주장이 유보된 남극권과는 달리 연안국들이 해역과 대륙붕의 영유권 주장으로 첨예하게 이해가 대립되는 북극해와 주권 행사 지역인 동토층의 광범위한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어느 한 국가가 종합적인 환경변화 연구 및 자원조사 활동이 불가능해 국가간 영역과 분야를 나눠서 담당하고 콘소시엄을 구성해 국제간의 공동연구 또는 공동조사를 통해 북극권 진출에 대한 기반과 권한을 마련하고 있다.

남·북극 얼음 바다를 항해하는 데 쇄빙선(碎氷船)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2009년 60여 종의 첨단 연구장비를 갖춘 쇄빙연구선 '아라온'을 건조했다. 헬기 이착륙장과 격납고, 자동위치조정시스템, 시추기, 첨단연구 장비 등을 갖춘 '얼음바다에 떠 있는 해양연구소다. 특히 아라온호에 실린 10m급 해양퇴적물 시추기로 채집한 퇴적물은 빙하기에서부터 현재까지의 기후변화 추이를 볼 수 있는 중요한 열쇠다. 두께 1m의 얼음을 깨면서 시속 5.5km로, 얼음이 없으면 시속 30km 정도로 운항할 수 있으며 360도 회전할 수 있고 전·후진은 물론 좌우 이동도 가능하다. 아라온호 도입 이후 공동연구를 제안하는 나라들이 늘고 있다. 극지연구에 관한 한 선진국 대열에 올라선 것이다.

### 송도국제도시, 극지연구의 중심

남극세종과학기지, 북극다산과학기지 그리고 쇄빙연구선 '아라온' 등의 엄마 품 역할을 하는 곳이 극지연구소다. 극지연구소는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있다. 극지연구소는 지구환경의 원인 규명을 위해 극지역의 대기, 지질, 빙하, 운석, 해양환경, 생물자원 등의 연구 활동을 펼치고 있다. 더불어 글로벌 이슈에 대응하는 심도 깊은 극지연구 사업의 추진은 물론 우리나라 주도의 국제공동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 극지연구소가 잠시 부산 이전 논란에 휩싸였다. 논란은 한국해양연구원 이 7월부터 한국해양과학기술원으로 확대 개편하고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계획에 따라 2016년 초 부산 영도로 이전할 계획이 세워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극지연구소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 대상에서 제외되어 그대로 인천에 남는다. 현재 극지연구소 신청사가 송도국제도시에 건설 중이다. 정부는 2020년까지 세계 7대 극지 연구수준 달성을 위해 2천700억 원을 투입해 자원보존 연구, 극지 기반 기후변화 관측 등의 연구 지원, 극지연구소의 정책기능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여름이 파랗게 익어 가면 마음은 어느덧 길을 찾아 나선다. 덕적도 바다에는 굴업도, 문갑도, 울도, 백아도가 보석처럼 뿌려져 있다. 그 가운데 이미 세상에 들려버린 섬도 있지만 아직 비밀스레 아름다움을 숨기고 있는 섬도 있다. 덕적도 남서쪽 곶머리에 오롯이 핀 백아도가 그렇다.

글. 정경숙\_본지 편집위원 사진. 김성환\_포토저널리스트

1 발전소 마을 전경 2 백아도의 기암괴석 3 선착장으로 가는 해안도로

## 쉬 닿을 수 없어, 마음을 붙잡는 섬

### 남서쪽 바다 끝에 비밀스레 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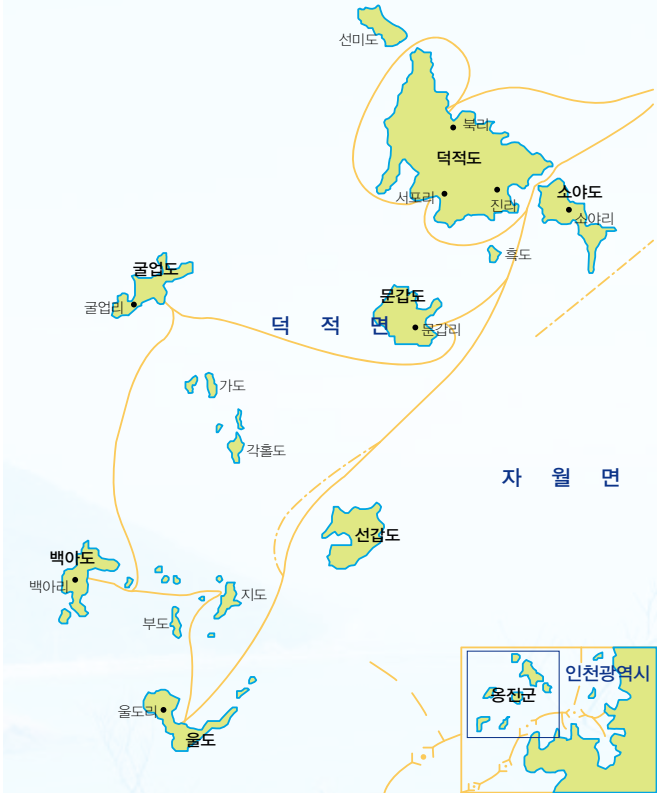
이른 아침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 덕적도 건너 백아도로 가는 쾌속선이 출항을 기다리고 있다. 희뿌연 안개꽃이 온 바다를 뒤덮었다. 아차, 싫다. 좋은 날씨에 욕심내어 여행날짜를 하루 미룬 티였다. 하지만 짙은 해무도 365일 가운데 허락된 외출에 일렁이는 마음을 어찌할 수는 없다. 드디어 여객선이 속도를 내고 흰 물떼가 쪽빛 용단을 두 쪽으로 가르며 길게 이어진다.

깊디깊은 '큰물' 덕적도 바다에는 굴업도, 문갑도, 울도, 백아도가 보석처럼 뿌려져 있다. 덕적도와 굴업도는 그 아름다움을 세상에 들려버린 지 오래지만, 아직 보일 듯 말 듯 속살을 감추며 애태우는 섬이 있다. 백아도다. 섬은 서쪽으로 80km 떨어져 있는 덕적도에서도 남서쪽으로 한참을 더 가야 닿을 수 있다. 가는 배도 완행이다. 덕적도에서 배를 갈아타고 섬을 건너고 건너야만 한다. 그나마 지난해 차도선형 여객선 나래호가 취항하면서 뱃길이 40분 정도 가까워졌다. 공교롭게도 그 섬과 세상을 잇는 나래호의 송진호 선장(63)은 백아도가 고향이다. 27년간 바다와 동고동락하다 3년 전 퇴직했지만 그 연을 놓지 못하고 다시 키를 잡았다. 노장은 비보다 바람보다 무섭다는 해미 앞에서 신중하면서도 노련하게 바다를 가로지른다.

다행히 안개꽃이 걷히고 그 사이 점점이 박힌 섬들이 수채화로 곱게 피어난다. 저 멀리 선단여가 보인다. 애달픈 전설이 빚어낸 바위섬은 보는 위치에 따라 하나에서 둘로 둘에서 셋으로 변하며 마술쇼를 부른다. 백아도가 머지않았다.







#### 덕적도 바다에 박힌 보석들을 찾아서

덕적도 주변에는 8개의 유인도와 33개의 무인도가 올망졸망 가족처럼 떠 있다. 그 섬들을 찾아 떠난다.

●소야도 덕적도에서 단 0.5km 거리에 있는 가까운 섬. 그래도 배를 한번 갈 아타야 하는 번거로움에 아직 티 없이 맑은 자연을 품고 있다. 섬에는 약 700m에 이르는 은빛 모래사장을 품은 때뿌루 해변이 있다.

●굴업도 서섬과 동섬 두 개의 섬이 하나로 연결된 듯한 모습을 하고 있다. 두 섬은 목가미 해변으로 연결돼 있는데, 물이 차오르면 물에 잠겨 사라져 하나의 섬을 두 개의 섬으로 나눈다. 대표해변은 큰말해변이다.

●문갑도 섬 전체가 전형적인 소나무 군락을 이루고 있다. 섬의 모습이 선비들이 책을 읽는 책상의 문갑 같다하여 문갑도로 불린다. 산을 병풍삼아 깨끗한 백사장이 펼쳐진 문갑해변과 한월리해변을 품고 있다.

●울도 물에서 멀어서 물면서 들어가고, 나갈 때는 훈훈한 인심에 떠나기 섬 섬해서 울고 간다는 울도. 196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민어, 조기, 새우잡이가 한창이었고 호황일 때는 파시가 열렸다. 섬 전체가 낚시터라 고기를 잡으며 고독을 즐기기 딱이다.

●지도 남단의 민가 주변을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소나무 군락이 드리워지고, 해안 임벽을 따라 소나무가 우거져 있다. 덕적군도가 다 그렇듯 섬 전체가 천연 낚시터로 우럭·노래미 등이 지천에 널렸다.

**여행 Tip** 인천연안여객터미널에서 쾌속선을 타면 1시간 정도 후면 덕적도에 도착한다. 이후 덕적도 바다역에서 문갑도, 백아도, 울도, 지도 각 섬을 잇는 배 나래호를 탄다. 백아도까지 1시간 30분 정도 걸린다(고려고속훼리 [kefship.com](http://kefship.com), 1577-2891). 백아도에는 민박집이 네 집 정도 있으며, 섬으로 가기 전에 미리 예약해야 한다. **백아 섬마을 민박** 834-7628, 011-758-4274(이장 장성자). 한편 **섬투어**([seomt.kr](http://seomt.kr), 761-1950)는 덕적도를 지나 문갑도·굴업도·울도·지도·백아도 등 인근 섬을 여행하는 1박2일 여행 코스를 선보이고 있다. 요금은 백아도행이 일반 7만6천원, 인천시민은 5만4천원이다.

#### 여름이 반짝반짝 빛나던 그 섬

3시간 넘게 해미를 가르고 파도를 헤쳐 섬의 품에 안겼다. 백아도는 김정호의 <대동여지도>에 ‘배알’이라고 표기되어 있으나, 그 후 섬의 모양이 흰 상어의 이빨 같다하여 백아도로 불리었다. 섬은 처연하리만큼 고요하다. 휴가철이 아니더라도 주말이면 사람들로 북적이는 인근 섬과는 사뭇 다르다. 최근 ‘1박2일’을 찍으면서 유명세를 타긴 했지만 정작 사람들의 발길을 모으지는 못했다.

“방송에서는 백아도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이 섬이 얼마나 아름다운데..., 저기가 그 유명한 기차바위에요. 등산로를 오르거나 바닷가를 따라가면 수려한 풍광이 연이어 펼쳐집니다.” 백아도 내연발전소의 차준덕(50) 소장은 연예인들이 웃고 떠드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느라 정작 백아도를 저만치 떨어뜨린 것이 못내 섭섭하다. 섬을 향한 애뜻한 마음을 보여주 듯 그의 최신형 스마트폰에는 백아도가 배경화면으로 선명히 새겨져 있었다.

섬은 세 개의 해변을 품고 있다. 섬 가운데 초승달 모양으로 뻗은 긴긴 마을 해변은 갯벌이지만 모래결이 보드랍고 경사가 완만해 물참에 물놀이하기 좋다. 또 조개가 드글드글해 잣감엔 빗자루로

쓸듯 조개를 주어 담을 수 있다. 옛 백아선착장을 곁에 둔 내연발전소 앞 해변은 아담하지만 물빛이 아름답다. 서해라고는 믿기지 않는 에메랄드빛 바다는 눈에 닿기만 해도 청량감이 끼쳐온다. 선착장에서 고기잡이배를 얻어 타고 해안을 따라 돌게 된 건 행운이다. 한편에는 하늘과 하나된 수평선이 한편에는 기암절벽과 바위가 시야를 가득 채운다. 동해처럼 가슴을 후벼 파는 비장미는 없지만 잔잔한 아름다움으로 마음에 파고든다. 저기, 바위에서 한가로이 별을 즐기던 가마우지 한 마리가 인기척에 놀라 높이 날아가 버린다. 고른 한낮, 하늘 위에선 여름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다.

#### 발길은 떠나도 마음은 머물러

총면적 1.76㎢ 등산로를 따라 반나절이면 다 돌아볼 수 있는 작은 섬에는 25가구 40여 명이 너나들이하고 있다. 예전에 큰 마을이라 불리던 발전소마을에 11가구가 작은 마을이라 불리던 보건소마을에 14가구가 오롯이 살아간다. 큰 마을 작은 마을이 뒤바뀐 셈이다. 하지만 섬도 한때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내가 국민학

교에 다닐 때 만해도 100여 가구가 섬에 살았어. 우럭, 농어, 광어, 놀래미를 주워 담을 정도로 풍년이었지.” 섬에서 나 섬에서 살아 온 이효남(60) 할아버지가 어릴 적 만해도 그랬다. 하지만 지금 아이들은 물으로 떠났고 섬에서 유일한 초등학교도 사라졌다. 외로이 남은 어르신들은 자식에게 나눠 줄 무와 배추를 키우는 소일거리를 하며 욕심 없이 살고 있다. 아무리 물고기발이 지천인들 이제 고기 잡을 사람이 없다. 살차게 쏟아지던 햇살이 누그러지고 어느덧 육지로 가는 배가 닻을 내릴 시간이 가까워졌다. 섬을 떠나는 사람들과 주민이 작별인사를 하느라 조용했던 섬이 시끌벅적하다. 그들이 떠나면 다시 고요가 흐르겠지.

7년 만에 백아도를 다시 찾았다는 한 방문객은 말한다. “세상은 이 아름다운 섬을 왜 모를까요. 백아도로 곧장 가는 배가 생겨서, 이곳이 지나가는 섬이 아닌 찾아 머무르는 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덕적도에서도 서쪽으로 한참을 더 가야 다다른 머나먼 섬. 그 섬이 주는 단절감이 못내 아쉬움이 되어 사람의 마음을 오래도록 붙잡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본다.





1 종합운동장 담장 벽화 2 연평초 담길

## 상흔, 그래도... 바람처럼 자유롭다

2010년 11월 23일 오후 2시 34분, 잔잔하던 연평도 바다가 충격과 슬픔에 휩싸였다. 160여 발의 포탄이 비처럼 쏟아지던 연평도. 그 섬은 이제 일상으로 복귀했지만 아직도 그 날의 흔적은 곳곳에 고스란히 남아있다. 그 상흔들은 연평도를 안보 관광섬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고 있다. 상흔을 따라 건다보면 우리의 발걸음은 흠칫 놀라기도 한다. 그렇지만 오늘도 여전히 연평 바다는 힘차게 굽이치고 태양은 뜨겁게 떠오르고 있다. 그곳에 가면 바람처럼 자유를 얻는다. 'free as wind'

글·사진. 김민영\_자유기고가

### 2010년 11월 그 날을 걷다

바다에는 신호등이 없다. 연안부두를 내쳐 달린 쾌속선은 1백27km 떨어진 연평도를 2시간 30분 만에 다다른다. 섬의 모양이 바다 위에 평평하게 늘어놓아 뻗진 형이라 하여 '연평도'. 이 섬은 오히려 북녘땅에 치우쳐 있다. 북한 해주에서는 불과 6km 거리여서 날씨가 맑을 때는 해주역이 보인다. 연평도의 당섬 선착장은 바닷길을 오가는 사람들로 분주하다. 2010년 11월 대한민국을 혼돈으로 흔들어 놓았던 연평도 그 현장을 밟았다. 연평도는 현재, 평화다.

우리의 기억 속에 그날의 사건들이 차츰 빛바래며 퇴색하고 있지만 그 섬의 곳곳은 여전히 포탄의 흔적과 함께 주민들의 황망함이 담겨있다. 그 현장을 잇는 올레길을 따라 연평도를 걷는다. 마을로 향하는 길에 종합운동장의 건담이 있다. 알록달록 화사한 담장 벽화가 걷는 길을 단속시킨다. 담 한편, 거대한 두 손이 받치고 있는 곳에는 시멘트 속의 철근이 밖으로 튀어 나와 행하다. 그 위로 붉은 깃발이 바람에 펄럭인다. 포격의 흔적이 무참하다. 단단한 시멘트를 뚫고 산산이 부서져 주변으로 흩어져 내렸을 파편

들. 연평도 주민들의 심장과 우리나라 국민들의 가슴에도 이렇게 구멍이 뚫리고 찢겼다.

연평면사무소 사거리의 담에는 현재 '명화 갤러리 길'로 꾸며져 발걸음을 가볍게 한다. 지진을 맞은 듯 흔들렸던 그날을 담았던 영상 속의 면사무소도 지금은 차분하다. 그러나 건물의 뒤편에는 구멍 뚫린 채 누워있는 정사각형의 두꺼운 시멘트 판이 처참하다. 포탄의 흔적이 담긴 면사무소의 한쪽 벽면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다. 맞은편에 위치한 연평초등학교 담에는 그날을 상기하듯 아이들은 크고 작은 돌맹이에 글과 그림으로 희망과 아픔을 담아 올려놓았다. 그날의 기억들이 돌에 새겨져 릴레이를 한다. 마을 어귀에 거대한 푸른 비닐막이 쌓여있다. 작은 문을 통해 들어선 비닐막 속은 가옥의 형체만 남아 있다. 검게 부서져 내리고 그을려 푸른빛에 쌓여 있는 두 채의 가옥은 그날의 악몽을 전하는 듯하다. 주인을 잃고 형체를 잃어버린 냄비와 숟가락 등 세간들. 이곳은 그대로 보존되며 새로이 건축되고 있는 건물과 함께 2012년 11월 연평도 안보교육장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3



4



5

3 등대공원 4 병풍절벽 5 아이스크림 바위

## 아름이 새겨진 소나무 한그루

폭격은 울창하던 연평도를 벌거벗게 하고 수치심을 안겼다. 푸른 소나무가 유난히 많던 연평도 송림지역은 불에 타 속살을 내보이고 있다. 산으로 오르는 길은 구불구불하고 경사가 제법 있다. 시야가 확 트여 연평도가 한눈에 보이는 곳에 멈춰 선다. 우뚝 솟아 있는 길가의 소나무 한 그루가 시선을 잡는다. 나무의 줄기를 따라 올라 간 시선의 끝에는 투명 캡이 감싸있다. 그 안에는 해병대 모표가 박혀있다. 그 모표의 주인은 고(故) 서정우 하사다. 그는 현 위치에서 포탄을 맞고 산화했다. 산화하는 순간 서 하사의 모자에 있던 모표가 소나무로 튀어 올랐다. 발길이 쉬 떨어지지 않는다. 이 길은 부대로 복귀하는 유일한 길이다. 이 길을 따라 부대로 복귀하는 서 하사의 걸음이 얼마나 급했을까?

그의 흔적을 뒤로 하고 연평도의 해안을 굽어본다. 녹지로 아늑하게 둘러 싸여있는 마을이 평화롭다. 그 아픔과 그리움은 망향전망대에서 만날 수 있다. 해당화가 붉게 피어오른 계단 길을 따라 오르면 망향비가 정상을 지킨다. 먼 바다의 끝을 향해 시선을 멈추지 않는 망향비. 그 곳에는 이별의 아픔과 슬픔이 오롯이 새겨져 있다.

## 해풍에 아픔을 털어낸다

비록 깊은 상흔은 남아 있지만 연평도의 산과 바다, 그리고 절벽엔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아 오히려 아름다움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그 중 백미는 뽕뽕 절벽이다. 누군가 영화 '뽕뽕'의 마지막 장면에서 주인공 스티브 맥퀸이 바다를 향해 뛰어내린 그 절벽을 연상시킨다고 해서 제법 그럴싸한 이름을 붙여주었다. 그 안목이 제법이다. 땅으로부터 높이가 40여m, 보면 볼수록 정말 그럴싸하다. 절벽으로 가기 위해 걸어가는 숲길도 그러려니와 절벽에서 발아래 풍경을 내려다보면 스티브 맥퀸이 자유를 찾아 바다속으로 뛰어들며 'free as wind'를 외쳤던 장면이 떠오른다. 절벽 주변엔 어머니의 자궁 속처럼 깊고 푸른 계곡이 있다. 그 사이로 검푸른 빛의 바다가 맴돌고 있다.

뽕뽕 절벽에서 오른쪽 아래로 내려다보이는 해변이 가래칠기이다. 알록달록한 자갈과 굵은 모래알들이 발에 밟히는 천연해변이다. 군데군데 넓적한 바위들이 터를 닦고 있어 아무데나 걸터앉으면 그곳이 곧 그 쉼터가 된다. 이웃한 구리동 해수욕장은 북녘해안이 뻗어 보이는 곳에 위치한 자연 해수욕장으로 썰물 때면 백사장이 5백m 정도 모습을 드러낸다. 흰 자갈, 고운 모래가 펼쳐

져 있고 인근에는 기암괴석들이 불쑥 솟아있어 진풍경이다. 손으로 한 움큼 잡아도 손바닥에 한 알갱이 남지 않고 쏟아져 내릴 만큼 모래가 곱고 해당화가 곱게 피는 방파제가 해수욕장을 호위하듯 감싸고 있다. 대나무 해변은 한적하고 아담한 해변인데 갯바위 낚시로도 유명하다.

연평도에서는 멋진 일출과 일몰을 함께 즐길 수 있다. 마을로 들어오기 위해 지나는 당섬과의 연륙교는 일몰과 일출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곳이다. 바다 속으로 해가 떨어졌다가 아침이면 그 자리에서 다시 떠오르는 해를 볼 수 있다. 마을 앞 모의도 바위섬 사이로 솟아오르는 일출은 마치 동해바다의 일출을 연상할 정도로 장엄하다. 구지도 3개 섬과 개펄 사이로 지는 노을은 여행객들의 탄성을 자아내게 하기에 충분하다.

연평도의 또 다른 볼거리로는 얼굴바위, 얼굴바위(소연평도)는 보는 위치에 따라 5개의 다른 얼굴로 나타난다는 연평도의 명물이다. 이밖에 병풍을 처놓은 것처럼 보이는 병풍바위, 팔배개를 하고 누운 농부처럼 보이는 와상바위, 그리고 겨울에 바위 위로 눈이 쌓이면 마치 소프트 아이스크림처럼 된다고 해서 애칭을 얻은 아이스크림바위 등은 빼먹지 말아야 눈요기다.

## 연평도 풍어제와 충민사



임경업 장군이 청나라를 치기 위해 명나라로 가던 중 연평도에 들러 가시나무로 조기를 잡은 것이 연평도 조기잡이의 유래가 되었다. 그의 전설적인 지혜를 숭모하기 위해 지은 사당이 충민사다.

'장군님 장군님, 만선귀향 비나이다.' 조기 파시로 유명한 연평도에서는 매년 정월 대보름을 앞두고 만선의 꿈을 비는 풍어제가 열린다. 연평도 풍어제는 조선 16대인 인조 때 임경업 장군이 청나라 정벌을 위해 중국 산둥성으로 가던 중 연평 앞 바다에 가시가 달린 나무를 꽂아 조기를 잡은 데서 비롯된 것으로 전해진다.

연평도에서 많이 잡히는 조기, 꽃게, 해삼 등 13종류의 어종을 뜻하는 13개의 깃발이 선착장에서 마을입구까지 내걸린다. 풍어제는 임경업 장군의 사당을 모시는 충민사에서 열린다. 임 장군을 그린 장군기와 화려한 5색 만장기의 물결 속에서 풍물패의 장단으로 시작되고 '배 연신긔'를 하며 후곤 달아오른다. 무속인은 어민들의 기원을 모아 사설조로 어민들의 안전과 풍어를 빈다. 우리나라 최대의 '조기 파시'의 섬 연평도의 역사를 재조명해볼 수 있고 전망대 기능도 함께 하고 있는 조기역사관이 있다.



## 최북단에 홀로 떠 있는 바다의 종착역 백령도



1 사곶해변 2 심청각 3 두무진 (사진 홍승훈)

‘장산곶 마루에 북소리 나더니 금일도 상봉에 임 만나 보겠네...’  
맑은 날이면 몽금포 타령의 무대인 북녘 땅 장산곶이 먼발치로 보  
이는 섬. 더 이상 북상할 수 없는 군사분계선을 머리에 인 채 서  
해5도 중 최북단에 홀로 떠 있는 섬, 백령도. 이곳은 바다의 종착  
역이다.  
망망대해의 물결을 헤치고 백령도 용기포항에 내리면 먼저 왼쪽  
에 섬의 명물 사곶해수욕장과 만난다. 이 구조토 해변은 자동차  
가 전속력으로 달려도 바퀴자국이 생기지 않을 정도로 단단하다.  
세계에서 이태리의 나폴리와 단 두 곳 밖에 없다는, 유사 시 비행  
기의 이착륙이 가능한 천연비행장이다. 여기서 남서쪽으로 내려  
가면 콩알만한 오색빛깔의 크고 작은 돌맹이가 2km 가량 뒤덮인  
콩돌해안이 나온다. 마치 큰 콩들을 넣어놓은 듯 하다.  
백령도 비경 중에서도 최고로 꼽히는 곳은 ‘서해의 해금강’이라고  
불리는 두무진이다. 이곳은 ‘돌의 미학’을 느껴볼 수 있는 곳이다.  
하늘로 쭉쭉 뻗은 바위들이 모여있는 해안가인데 웅맹한 장군들  
이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하는 것 같은 모양이다.

해안선에는 바람과 바다에 깎여 기둥처럼 솟은 선대암과 코끼리  
형상의 코끼리바위 등 기묘한 모습을 한 바위가 바다를 향해 도  
열해 있다.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서 이를 둘러보는 것은 진풍경  
이다.  
진촌리 뒤편 해안에는 ‘바다여’라는 물개서식지가 있다. 현재 3백  
여 마리가 모여 사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수면 위로 날아다니  
는 갈매기들과 어울려 노니는 모습은 보는 이들에게 신기함을 더  
해 즐거움을 선사해 준다. 백령도에는 이밖에 노랑부리백로, 물가  
마우지, 갯이갈매기, 백로 등 희귀조류도 눈에 띈다.  
백령도는 ‘심청전’의 배경무대이다. 심청이 공양미 300석을 구하기  
위해 중국상인들에게 팔려가 몸을 던졌다는 인당수는 바로 백령  
도 두무진 앞바다다. 인당수가 바라다 보이는 심청각에는 심청전  
고서를 비롯해 심청전 음반, 영화대본, 모형 등이 전시돼 있는 데  
다 망원경으로 북한 장산곶도 볼 수 있어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다.



1 농여해변 2 등대 3 부죽동 해안사구 (사진 홍승훈)

대청도는 백령도 가는 길목에 있다. 대청도를 빗길로 표현하라면  
그것은 감청빛, 하늘의 색도 바다의 빛도... 사탄동해수욕장은 우  
리나라 10대 해수욕장에 꼽힐 만큼 멋진 풍광을 자랑한다. 물도  
차가우려니와 파도가 높고 소리로 우렁차서 순간 동해안에 있는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옥죽동 해안가는 웅진군에서 내노라하는 비경 중의 하나이다. 갯  
벌이 섞인 질퍽한 해변이 아니라 바삭바삭한 모래사장이 깔려있  
다. 옥죽동에서 고개하나만 넘으면 닿게 되는 농여해수욕장은 힘  
차게 걸어도 발자국 하나 남지 않을 만큼 곱고 단단하다. 썰물 때  
미처 따라가지 못한 물들이 웅덩이에 고여 천연풀장으로 변신한  
다. 미아동 해안은 물이 빠지면 농여와 하나로 연결된다. 200m  
쯤 되는 해안이 쌍둥이처럼 나란히 이어져 있다.

옥죽동 해안가 뒤편에는 오랜 세월 바다로 난 바람 길을 따라 중  
국에서부터 날아온 모래가 한 알 두 알 모여서 만들어진 언덕이  
있다. 감청빛 바다와 어울려 이국적인 맛을 풍기고 있는 은빛 모  
래구릉은 사막에서나 볼 수 있는 높은 모래산과 깊은 모래골짜기  
를 이루고 풍향에 따라 파도 모양의 주름굽이나 별난 색깔의 무  
늬를 만들어 놓기도 한다.  
동생 섬, 소청도에는 등대가 있다. 등대는 섬 동쪽 끝에 고고히  
세워져 있다. 인천해양수산청 소청도항로표지관리소, 1908년 1  
월에 처음 불을 켜 소청도 등대의 행정명칭이다. 선착장에서 등대  
까지의 비포장 10리 길은 마치 고단한 등대지기 삶을 미리 엿보  
게 할 만큼 거칠고 험하다. 등대는 섬 속의 또 다른 섬이다. 그 속  
에서 보는 바다는 외로움 그 자체다.





## 한강에서 서쪽바다 건너 섬에 이른다

서울에서 김포, 인천으로 여객선이 유유히 물길을 가로지른다.  
 곁에는 파크웨이와 자전거도로가 시원하게 뻗어있고 생태공원이 푸르게 드리워 있다. 아름다운 마음 수향 8경도 곳곳에 빛나고 있다.  
 천년의 소망을 품고 떠나는 여정, 드디어 갑문이 열리고 배는 서쪽바다에 이르러 더 큰 세상으로 힘차게 항해한다.

글. 정경숙\_본지 편집위원 사진. 김성환\_포토저널리스트

### 경인 아라뱃길 타고 서해로

서울에서 김포, 인천을 지나 서해로 흘러가는 우리나라 최초의 내륙뱃길 경인 아라뱃길. 천년의 약속을 실현하며 지난 5월 새로운 역사의 페이지를 힘차게 열어젖혔다. 이 여름, 그 길 따라 서쪽 바다 건너 섬으로 간다.

이른 아침 아라김포여객터미널. 아직 단잠에 젖어 있는 요트의 모습만 봐도 드넓은 바다에서 자유로이 항해하는 듯 마음이 설렌다. 고개를 젖혀 하늘을 보니 터미널의 삼각형 지붕이 갓 솟아오른 태양에 젖어 더 웅장하고 화려하게 빛난다. 이곳에서 인천의 섬으로 가는 여객선이 닻을 올린다. 아쉽게도 현재는 덕적도까지 가는 배만 비정기적으로 운항하고 있지만 향후 이작도와 세어도까지 확대 운항할 예정이다.

덕적도로 가는 여객선 현대아일랜드호에 몸을 싣었다. 70여 명의 여행객이 탈 수 있는 작은 여객선이지만 물살을 가르는 속도는 제법 빠르다. 여객선의 속도는 시속 30노트로 아라뱃길에서 1시간, 갑문에서 20여 분, 서해에서 2시간 정도면 섬에 다다른다.



1



2



3



4



5

- 1 멀리보이는 수향 5경의 수향원
- 2 경인 아라뱃길 타고 덕적도 가는 현대 아일랜드호
- 3 경인 아라뱃길 파크웨이의 사람들
- 4 영종대교를 지나는 배
- 5 경인 아라뱃길에 나선 관광객들



수향 8경의 아름다움에 흠뻑

이윽고 여객선이 하얀 물꽃을 일으키며 물결 위를 가로지른다. 시원한 바람이 밀려와 일상에 쌓인 고단함을 말끔히 씻어낸다. 8km에 이르는 경인 아라뱃길 곁에는 파크웨이와 자전거도로가 시원하게 뻗어 있고 생태공원이 푸르게 드리워 있다. 아름다운 마을을 뜻하는 수향(水鄕) 8경도 곳곳에 보석처럼 빛나고 있다. 1경은 서해, 2경은 아라인천여객터미널, 3경은 시천가람터, 4경은 아라폭포, 5경은 수향원, 6경은 두리생태공원, 7경은 아라김포여객터미널, 8경은 한강이다. 배 위에서 바라보는 수향 8경은 시시각각 색다른 매력을 자아낸다.

배가 움직일 때마다 여기저기서 감탄사가 터져 나온다. 가장 인상적인 곳은 목상교를 지나자마자 만나는 수향 4경이다. 45미터 높이의 산협곡에 걸려 있는 전망데크 아라마루는 마치 하늘에 떠 있는 UFO 같다. 겹겹 정선의 인왕제색도를 재현한 국내 최대의 인공폭포인 아라폭포도 눈길을 끈다. 주말에만 폭포수가 떨어져 그 장관을 두 눈에 직접 담지 못한 게 못내 아쉽다.

갯문 지나, 강은 바다되어 흐르고

아라뱃길 여행의 하이라이트는 갯문체험이다. 갯문이 강과 바다의 수위를 똑같이 조절해야만 배는 안전하게 바다로 나아갈 수 있다. 갯문은 보안상의 이유로 일반인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배를 타고 이곳을 지나는 건 매우 특별한 경험이다. 30분이 지났을까, 한참 물의 높이를 조절하던 갯문이 드디어 열렸다. 배가 바다로, 바다로 나아간다. 저 멀리 섬이 어서 오라 손짓한다. 가슴이 두근거린다.

마침내 바다. 영종대교가 하늘과 하나로 물든 바다 위에 긴 선을 그리고 갈매기가 하늘을 선회한다. 감청빛 물결 위에는 크고 작은 섬들이 신비로이 떠 있다. 그렇게 배는 2시간을 내달려 깊디깊은 '큰물' 덕적도에 다다랐다. 소나무 숲에 둘러싸인 섬. 삼베에 물감이 스며들듯 금방이라도 온 세상에 푸른 물을 퍼트릴 것만 같다. 주어진 시간은 단 4시간, 짧지만 그래서 섬에서의 휴식은 더 깊고 달콤하다.

다시 섬에서 바다로 강으로, 일상으로 향하는 가는 길. 불그스레한 태양이 수평선 너머로 서서히 저물어 간다. 오늘이 지워지지 않을 추억으로 살포시 가슴에 내려앉는다.

**여행 Tip** 섬으로 가는 여객선은 김포여객터미널에서 항해를 시작한다. 덕적도 가는 배가 토요일, 일요일에 정기적으로 주중에는 30명 이상 단체 관광객에 한해 비정기적으로 운항한다. 운항코스는 아라김포여객터미널 → 아라뱃길주운수로 → 인천대교 → 팔미도 앞바다 → 무의도 앞바다 → 덕적도다. 요금은 아라뱃길 개장기념으로 당분간 대인 4만8천원, 소인 2만2천원으로 특별할인한다. 문의 현대유람선 aracruise.com, 882-5555



6 수향 5경인 아라마루 7 일상으로 돌아가는 길, 낙조에 젖은 경인아라뱃길  
8 서포리해수욕장 9 덕적도 해안산책로 10 섬으로 돌아오는 아일랜드호



경인아라뱃길 타고 가는 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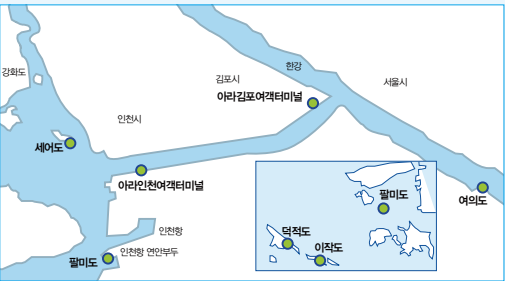
경인아라뱃길 타고 서해로 가는 여객선은 현재 덕적도까지만 운항하고 있다. 하지만 향후 이작도와 세어도까지 확대 운항할 예정이다. 그 섬들을 미리 가 본다.

**덕적도** 물이 깊디깊어 '큰물'이라 불리는 섬으로 소나무 숲이 짙게 드리워졌다. 이 섬에는 서해 최고의 바닷가로 손꼽히는 서포리해변이 그림처럼 내려앉아 있다. 모래결이 곱고 경사가 완만하며 솔숲이 울타리처럼 둘러쳐져 아늑하다.

**세어도** '서쪽에서 멀리 머물다'는 뜻을 지닌 '서유(西留)'에서 비롯된 세루섬으로 불리던 섬. 정서진 선착장이 생기면서 만석부두에서 한 시간을 돌아서 가던 뱃길이 단 오 분으로 가까워졌다. 인근의 아라인천여객터미널 가까이에는 해님이 명소 정서진이 있다.

**이작도** 자월도 가까에서 꿈 인랑 부유하는 작은 이작도, 대이작도와 소이작도로 이루어진 섬은 작지만 풀동, 큰풀안, 작은풀안 등 제법 아름다운 해변이 많다. 그 가운데 모래섬 풀동은 밀물이면 바닷속으로 사라졌다가 썰물 때서야 제 속살을 드러낸다.

**팔미도** 두 개의 섬이 마치 여덟 팔 자처럼 양쪽으로 뻗어 내린 꼬리와 같다하여 팔미도라 불리는 섬. 그 섬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등대가 있다. 그 등대는 106년간 홀로 바다를 비추다 지난 2009년 사람들의 발길을 허락했다.



※ 자세한 정보는 경인아라뱃길 여객터미널(araterminal.co.kr, 02-3271-6900)과 현대유람선(aracruise.com, 882-5555)에서 확인한다.



# 천년 바람 유유히 흐르는, 그 섬

날카로운 피약별 피해 강화로 간다.  
강화는 본섬을 비롯해 석모도, 불음도, 주문도 등 보석 같은 섬들을 아우르고 있다.  
오랜 세월을 거스른 역사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기도 하다. 그 섬에서 천년 바람 맞으며 유유히 이 여름을 보낸다.

글. 정경숙\_본지 편집위원    사진. 김성환\_포토저널리스트

도심에서 그리 멀지 않지 않은데도 강화 땅이 선사하는 서정은 어찌 이리도 안온한지. 날카로운 한여름 피약별은 모두 걷어내고 모시이불처럼 선선하게 마음을 덮어준다. 섬은 착하기도 하다. 두 개의 다리와 육지로 이어져 있어 어느 때건 맘만 먹으면 닿을 수 있다. 초지대교 건너 바다가 이끄는 대로 바람이 손짓하는 대로 강화로 간다. 피서객들의 차량행렬이 길게 이어져 있지만 푸르게 넘실거리는 물결이 조금했던 마음을 너그럽게 어루만진다.

다리 건너 남쪽으로 가면 동막해수욕장에 이른다. 이곳은 물 차면 푸른 세상이 열리고 물 빠지면 진회색 용단이 드넓게 펼쳐진다. 발이 거의 빠지지 않는 모래갯벌이라 걷는 재미도 톡톡하다. 그 위에서 쓴살 같이 사라지는 방게와 숨바꼭질 하노라면 어떻게 하루해가 지는지 모른다. 강화에는 쪽빛 바다 위 보석처럼 점점이 박힌 섬들을 찾아 떠나 는 즐거움도 있다. 외포리선착장에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면 가

까이 석모도부터 멀리 불음도와 주문도, 아차도까지 닿을 수 있다. 이웃한 석모도는 뱃길로 15분이면 다다른다. 민머루해수욕장에서 보드라운 갯벌의 감촉을 느끼고, 근처 하얗게 꽃핀 염전과 짠 내 가득한 장구너머포구에서 소박한 정취에 젖어 본다. 섬은 지는 해가 아름답기로도 유명하다. 바다가 몸을 식히려 할 즈음 보문사에서 바라보는 낙조는 마음에 기나긴 여운을 남긴다. 뱃길로 1시간 정도 가면 불음도다. 외포리를 떠난 배가 수면 위를



1·3 동막해수욕장    2 광성보

미끄러지며 먼 바다를 건너 목적지에 닿는다. 섬은 평화롭고 고요하다. 선착장에서 해안도로를 따라가다 왼쪽 길로 들어서면 조갯골해수욕장. 1.2km에 이르러 펼쳐진 해변과 맞닿은 바다가 수평선 너머로 아득히 펼쳐진다. 주문도는 불음도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뒷장술, 앞장술, 대빈창 아름다운 해변이 곳곳에 있지만 인적이 드물어, 느리게 조금은 게으르게 여름날의 여유를 누릴 수 있다.

**발길 닿는 곳마다 흐르는 역사** 오래된 유적지가 읊어내는 역사 이야기도 강화 여행에 의미를 더 한다. 단군의 정기가 서린 참성단을 비롯해 광성보, 덕진진, 초지진 등 한민족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마지막 보루 역할을 했던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다. 또 읍내에는 고려궁지, 용흥궁, 강화산성, 강화유수부 동헌과 이방청, 성공회 강화성당 등 역사 교과서 속 유적지가 온전히 남아있다. 아우섬 교동도도 시간이 멈춰선 역사의 섬이다. 100년 세월을 고스란히 간직한 교동초등학교와 우리나라 최초로 공자상을 들어 온 교동향교, 복원하지 않은 채 남아있는 교동읍성 등이 이 섬의 역사를 말해준다.

**가는 길** 석모도·주문도·불음도에 가려면, 강화대교나 초지대교를 건너 강화도로 들어온 뒤 외포리선착장에서 배(삼보해운 여객터미널 932-6007)를 탄다. 교동도는 창후리선착장에서 화개해운(933-4268)을 이용한다.



# 별빛, 달빛, 모닥불 핀 ‘힐링캠핑’

캠핑은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다. 일상에 지쳐, 사는 데 바빠 뒤도 돌아보지 못하고 달려온 나를 치유하는 시간이다. 또 그간 소홀했던 가족, 지인들과 관계를 돈독히 하는 계기도 된다.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텐트를 치고, 모닥불을 피우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걱정거리,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든 일들이 하나씩 잊혀진다. 텐트 속으로 밀려드는 듯한 파도소리를 들으며 하룻밤을 자고나면 땅과 바다의 기운을 흠뻑 받아 내 몸이 생동함을 느낀다. 바다, 산, 해수욕, 갯벌체험, 바다낚시 등 여름 휴가에서 할수 있는 모든 체험이 가능한 인천 섬으로 캠핑을 떠나보자.

글. 이용남\_본지 편집위원



(사진, (주)코베아\_제공)



## 이웃과 함께하는 캠핑 Tip

캠핑인구가 120만명을 넘어섰다. 어디를 가든 캠핑족들이 넘쳐나면서, 간혹 캠핑장에서 무례한 무질서한 행동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주변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캠핑 팁을 소개한다.

### 밤엔 목소리를 낮추세요

밤에 얘기할 땐 모닥불이 탈 때 내는 소음 정도로 목소리를 줄인다. 야외에서는 소음이 없고 음량이 크게 퍼지기 때문에 이웃 텐트에 피해를 줄 수 있다.

### 화로에 모닥물을 피우세요

간혹 모래를 파고 그안에 모닥물을 피우는 사람들이 있다. 모래가 까맣게 타 보기 흉해진다.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 나무 훼손하지 마세요

캠핑을 하면서 땀감으로 산에서 나무를 꺾는 사람들이 있다. 꺾인 나무들이 등산로에 방치되면 흉물이다. 장작은 미리 준비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 ※ 섬 캠핑때 준비하세요

여벌 옷, 벌레퇴치용 약품, 비상약, 휴대용 담요, 전등

## 밀려드는 파도소리 들으며 하룻밤 시도 수기해수욕장

시도 수기해수욕장은 오토 캠핑족들이 선호하는 캠핑장이다. 영종 삼목선착장에서 10분 정도 배를 탄 후 5분 정도 차를 타고 들어가면 드넓고 푸른 바다를 품은 해수욕장이다. 해변가를 따라 소나무 아래 옹기종기 텐트를 친다. 너르고 평평한 곳이 많아 텐트를 치기도 좋고 시설도 좋다. 지자체에서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샤워장, 화장실을 조성했다. 물도 잘 나오고 화장실도 깨끗하다. 이용료는 무료다.

수기해수욕장은 은빛의 폭신한 모래사장이 드넓게 펼쳐져 있어 아이들의 모래놀이 장소로도 그만이고, 물이 빠지면 흙 웅덩이 펼쳐진다. 갯벌에서는 조개, 게, 소라잡는 재미가 쏠쏠하다. 파도가 출렁이고, 오묘한 달빛이 하늘에 뿌려지기 시작하면 캠핑장 주변에 모닥불이 켜진다.

은은한 달빛도 좋고, 해송의 향긋한 냄새, 출렁이는 파도소리를 듣노라면 섬에서의 하룻밤은 점점 저문다. 화로에는 장작 타는 소리가 ‘타닥타닥’들리고, 어둠을 밝히는 가스전등이 테이블 앞에 하나둘씩 켜진다. 캠핑장의 밤이 무르익고 있음을 실감한다.

싱그런 밤 공기를 가르며 두런두런 나누는 사람들의 이야기 소리, 웃음 소리는 밤 하늘을 따라 퍼져나간다. 이 밤을 그냥 보내기 아쉬운 야영객들은 해변에서 축제를 시작한다. 축포쏘기, 소원을 담은 등달리기….

해수욕장 뒤로는 얇은 산이 있어 가볍게 등반을 할 수 있다. 산 위에서 바라보는 서해바다의 모습이 절경이다.

**가는길** 삼목선착장에서 신도에서 내려 차로 들어간다. 차비와 운행시간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세종해운 홈페이지 참조([www.sejonghaeun.com](http://www.sejonghaeun.com)).



**밤하늘 별을 세다** 소야도 떼부루해수욕장 캠핑장

연안부두에서 쾌속선을 타고 1시 10분~20분 정도면 도착하는 덕적도. 이곳에서 작은 배를 갈아타고 10~15분을 더 가야 소야도에 닿을 수 있다. 소야도는 덕적군도에 속한 작은 섬이다.

사람들의 발길 닿기가 쉽지 않은 이곳 소야도 떼부루 해수욕장이 캠핑장으로 변신, 캠핑



객들을 맞고 있다. 야영객들의 편의를 돕고자 새로 개수대, 수세식 화장실, 샤워장을 갖췄다. 지은지 얼마안돼 시설이 깨끗하고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이곳의 장점은 해변가를 중심으로 소나무 숲이 잘 조성되어 있고, 주변에 야영장이 있어 텐트치기 좋다. 주말이 되면 텐트 칠 곳이 없을 정도로 캠핑족이 많이 찾는다. 캠핑장 주변엔 섬에 어울리는 정자가 두채가 나란히 있어 소낙비나 강한 햇빛을 피하기도 좋다.

이곳은 영화 '연애소설'의 촬영지였다. 해변은 길이가 짧지만 아늑하고 파란하늘을 감상할 수 있다. 맑고 깨끗한 백사장에서는 물놀이를 비롯해 조개잡이, 낚시 등을 즐길 수 있다.

**가는길** 연안여객터미널에서 덕적도를 가는 고려고속훼리를 이용. 배시간, 요금 등은 고려고속훼리 홈페이지(keelship.com) 참조. 덕적도에서 소야도가는 뱃삿 1인당 1천5백원.

**물놀이하며 갯벌체험** 장봉도 캠핑장

장봉도에서 오토캠핑을 즐길만 한 곳은 웅암, 한들, 진촌 해변이다. 선착장에 내린 캠핑족들은 선착장 인근이나 솔숲이 좋은 웅암해수욕장, 호젓한 진촌해수욕장에 텐트를 주로 친다. 장봉도 해수욕장은 썰물때면 경사가 완만한 모래사장 앞으로 질 좋은 갯벌이 드러난다.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넓은 갯벌이다.

캠핑을 하면서 물이 들어오면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고, 물이 빠지면 갯벌체험으로 하루해가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로 쓸쓸한 재미가 풍성하다. 이곳 갯벌엔 조개가 풍부해 마음먹고 캐기 시작하면 웬만큼 양을 채울 수 있다. 텐트를 치는데 웅암은 돈을 받지



않지만 한들, 진촌은 1일 5천원을 내야한다.

장봉도는 백팩킹을 즐기는 사람들도 많이 찾는다. 해변을 따라 걸으면서 마음가는 곳에 소박하게 야영을 즐기는 사람들이다. 볼거리 즐길거리가 많은 섬이다.

**가는길** 삼목선착장에서 장봉도 가는 배를 탄다. 차비, 운행시간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세종해운 홈페이지 참조(www.sejonghaeun.com).

**노송과 고운모래가 어우러진 쉼터** 서포리 오토캠핑장

덕적도 서포리 해수욕장은 동해안 못지않은 고운모래 해변이 펼쳐진다. 해변을 드리우는 해송들의 나이도 3백년이 넘어 노송과 고운모래가 장관을 이룬다. 간조시에도 물이 거의 빠지지 않고 갯벌이 드러나지 않아 마치 동해의 어느 해변을 옮겨 놓은 듯 하다.

덕적도 서포리 오토캠핑장은 일일 1만원씩 캠핑장 사용료를 받는다. 캠핑객의 편의를 위해 화장실, 개수대, 취사장, 샤워시설, 종합운동장, 족구장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개장은 7월 20일로 예정되어 있다. 문의 덕적면 사무소 899-3712

**산과 계곡이 더 좋다** 강화도 함허동천

강화도 함허동천은 마니산 자락에 위치한 유명 휴가지다. 이용객들이 많아 선착순 예약을 받아 운영한다. 이곳은 캠핑족들의 무거운 짐 부담을 덜어주고자 손수레를 대여해 준다. 주차장에서 캠핑장까지 100여 미터에 이르는데 손수레가 없으면 땀을 뻘뻘 흘리며 몇 번을 오가는 수고를 감내해야 한다. 사용료는 없다.

캠영장은 최근 야영객들을 위해 족구장과 평상을 추가로 조성하고, 데크를 설치해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업그레이드 했다.

문의 강화군시설관리공단 930-7021, 함허동천 야영장 930-7066

**강바람 쏘며 폭포소리 들으며 경인아라뱃길 시천 가람터 캠핑장**

한강과 서해바다를 이으며 지난 5월 25일 개통한 경인아라뱃길. 주변은 시민을 위한 휴식, 문화공간으로 조성되어 있다. 특히 수향 3경의 시천가람터는 시민들의 즐길거리가 더욱 풍성하다. 시천가람터는 주말이면 알록달록한 텐트가 무지개처럼 펴진다. 경인아라뱃길의 시원한 물줄기를 따라 파란잔디밭에는 언제부터인가 텐트가 쳐지기 시작했다. 이곳은 캠핑장이 갖춰야 할 취사시설은 없지만 주말엔 주차가 힘들 정도로 많은 사람이 찾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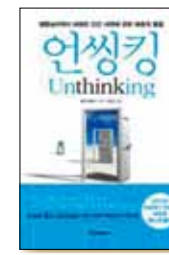
**가는길** 공항철도 검암역 1번출구에서 도보 5분.



# 무더운 여름 ‘북캉스’ 떠나요

(book+vacance)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어떻게 해야 휴가를 더욱 알차게 보낼 수 있을까?’ 산이나 강가, 바다로 여행을 떠나는 것도 좋지만, 만약 이런 휴양지의 번잡함이 싫다면, 또 업무와 집안 일로 몸도 마음도 바닥까지 소진되었다고 느낀다면, 이번 휴가에는 책을 읽으며 더위를 잠시 잊고, 충전의 시간을 갖는 북캉스(book + vacance)를 즐기는게 어떨까?



## (인생을 바꾸는) 여행의 힘

채지형 | 상상출판 | 2012

저자가 길에서 배운 지혜를 담은 이 책은 여행을 통해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주는 이론편으로, 그동안 저자가 여행가이자 여행작가로 살아오면서 느낀 모든 여행의 가치와 노하우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여행을 경험하면서 인생의 다양한 영역과 자신에게 숨겨진 능력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경험담을 진솔하고 편안하게 들려주고, 이를 통해 삶의 즐거움을 잃은 독자들이 여행을 통해 세상을 다시 바라보고 인생을 배우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안내했다.

## 소란한 보통날

에쿠니 가오리 | 소담출판사 | 2011

아빠와 엄마, 딸 셋과 아들 하나로 구성된, 평범하면서도 특별한 어느 가족의 일상을 그린 따뜻한 가족 소설이다. 화목하고 평범한 중산층 가정인 미야자가 집안. 어느 날 둘째딸 시마코가 저녁식사 자리에 소중한 사람을 데려오겠다고 선언하고, 가족들은 남자친구를 기대한다. 하지만 나타난 손님은 같은 회사에 다니는 여직원이었고, 시마코는 그 여자가 임신한 아이를 자신이 입양하고 싶다고 말한다. 한편, 시집가서 잘 사는 줄로만 알았던 큰딸 소요는 갑자기 짐을 싸들고 친정으로 돌아오는데...

## 죽기 전에 답해야 할 101가지 질문

잭 캔필 드 | 토네이도 | 2012

세계적인 카운슬러이자 저술가, 강연자로서 명성을 쌓아온 잭 캔필드와 마크 빅터 한센의 최신작으로, 우리의 삶을 지혜롭고 풍성하게 만들어 줄 보석 같은 이야기들을 고스란히 담았다. '나는 오늘 죽어가고 있는가,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에서부터 출발하여 '과거와 이별했는지', '원하는 삶에 가까워지고 있는지'등 생의 한가운데서 우리가 삶에게 묻고 삶에게 답해야 할 이야기들을 총망라했다. 이 세상 곳곳에서 자기 인생의 답을 찾아낸 사람들의 탐과 열정, 그리고 감동의 이야기들 만나 볼 수 있다.

## 백설공주에게 죽음을

넬레 노이하우스 | 북로드 | 2011

감출 수 없는 인간 내면의 어두운 본성과 마주하다! 어느 폐쇄적인 마을에서 일어난 사건을 그린 미스터리 소설. 독일의 작은 마을 타우누스를 배경으로 냉철한 카리스마 수사반장 보덴슈타인과 남다른 직감과 감성으로 사건을 풀어나가는 여형사 피아 콤비의 활약을 그린 '타우누스 시리즈'의 네 번째 작품이다. 여자친구 둘을 죽이고 그 시체를 은닉했다는 죄명으로 10년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청년 토비아스. 그날의 기억이 없는 토비아스는 자신이 정말 살인을 했는지, 아니면 누명을 썼는지 알지 못한 채 마을 사람들의 괴롭힘을 당하는데...

## 철학이 필요한 시간

강신주 | 사계절 | 2011

저자는 몇 년간 대중 강연에서 열심히 사람들을 만나고 고민하면서 어려운 인문학 강좌가 아닌, 실제 현실에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적용 가능한 철학적 어드바이스가 어떤 것인지를 터득했다. 이 책은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가장 잘 반영한 현실감 있는 인문 공감 에세이로 니체, 스피노자, 원효, 데리다 등 철학자들의 인문 고전을 통해 고민과 불안에 갇혀 있는 이들에게 솔직하게 삶에 직면하고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참다운 인문정신을 보여준다. 남들이 보는 '나'가 아니라 진정한 자신을 찾고, 타인과 맺은 비뚤어진 관계들을 제대로 잡고, 나와 너만이 아닌 우리 모두의 지속 가능한 소통을 위해 48명의 철학자들이 보낸 유리병 편지를 만나본다.

## 언씹킹

해리 백워드 | 토네이도 | 2011

모든 선택을 의심하고 뒤집어라. 그건 모두 누군가 파놓은 함정에 빠진 결과다! 이 책은 사회적 교육과 규범에서 벗어나 우리가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을 정확하게 포착해내는 '언씹킹'에 대해 이야기한 책이다. 저자는 우리가 최선이라고 믿고 싶어 하는 것과, 진짜 원하는 것 사이의 보이지 않는 간극을 규명해내고, 이를 활용해 성공적인 결과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언씹킹'이라 정의한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thinking)은 누군가의 간섭과 통제를 받아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언씹킹의 영역을 통해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고 말한다.



## 주제별 추천도서

자료제공 | 미추홀도서관 440-6655

서명	지은이	출판사	책 소개
대한민국 숨겨진 여행지100	이종원	상상출판	작가가 10년 동안 전국을 돌아다니며 쌓아온 여행기 1천여 편 중에서 가장 유쾌하고 의미 있는 여행지 100곳을 소개한 책
재주기행	주강현	웅진지식하우스	어느 인문학자의 눈으로 바라본 올레 돌쟁이 바람의 풍경들
대한민국 가져야 할 모든 것	임병국 외	지식채널	여행코스는 물론 테마여행, 이색열차, 지역별 여행지 소개 및 코스별 일정을 수록하여 자신에게 맞는 여행계획을 세울 수 있는 맞춤 가이드북
여자라면 꼭 봐야 할 100곳	스테시 알콘도 그라스트	국일미디어	여자여, 배낭을 들고 당당하게 떠나래! 세계 각국의 여행지들 소개
시크릿 더 파워	론다 번	살림출판사	삶의 모든 좋은 것에 다가가는 단 한 가지 파워, 바로 사랑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룬다
무조건 행복할 것	그레첸 루빈	21세기북스	1년 열두 달 내 인생을 긍정하는 48가지 방법
회복 탄력성	김주환	위즈덤하우스	회복 탄력성으로 어려움을 이겨낸 사람들의 사례를 소개하고, 회복 탄력성에 대한 연구결과 등 실증적인 증거를 제시한다.
죽기 전에 답해야 할 101가지 질문	잭 캔필드	토네이도	이 세상 곳곳에서 자기 인생의 답을 찾아낸 사람들의 탐과 열정, 그리고 감동의 이야기를 만나 볼 수 있다.
나의 내면을 검색하라	차드 멩 탄	알키	내면의 평화를 찾기 위한 감정조절 프로그램 소개
(내 마음의) 아생화 여행	송기엽	진선BOOKS	생생하면서 감성적인 사진과 아생화의 정보가 담겨 있고, 자연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아생화의 치열한 삶과 아름다움을 만나볼 수 있다
3분 고전	박재희	작은씨앗	고전으로 인생을 경영하라! 저자가 평생 고전을 읽으면서 가슴에 담아두었던 글귀들을 통해 현대 생존 전략과 인간적인 사고, 생활방식 등을 배울 수 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철학적 이유	피터 케이브	에크로스	일상속에서 만나는 철학의 재발견. 이기적인 세상에 맞서는 아주 보통의 철학 33가지
세상이 던지는 질문에 어떻게 답 해야할까	페르난도 사바테르	갈매나무	청소년과 성인 모두를 위해 철학적 호기심을 풀어주는 지침서이다
꽃이 지고나면 잎이 보이듯이	이해인	샘터	암 투병과 상실의 아픔으로 빚어낸 이해인 수녀의 희망 신문집으로 꽃이 진 자리에도 여전히 푸른 잎의 희망은 살아 있음을 전한다.
꾸뻏 씨의 우정 여행	프랑수아 클로르	열림원	여행의 과정을 통해 우정에 관한 성찰을 풀어놓은 이 책은 이상적인 우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를 다루고 있다.
바보빅터	호아킴 데 포사다	한국경제신문사	실화의 내용을 바탕으로 쓰디쓴 좌절과 고통, 위기 속에서도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할 희망과 믿음에 대해 이야기한다.
코끼리에게 날개 달아주기	이와수	해냄출판사	삶을 사랑하고 인생을 노래하는 작가 이와수의 감성 치유 에세이. 지치고 흔들리며 살아가는 다수의 독자를 향해 응원의 메시지를 전한다.
위험한 관계	더글라스 케네디	밝은세상	주인공들의 로맨스에서 치열한 법정공방전으로 마무리되는 섬뜩한 결혼 이야기. 또한 영국과 미국의 사회보장제도와 법제도의 차이를 대비해 보여주면서 흥미를 배가시킨다.
화차	미야베 미유키	문학동네	평범한 삶에 대한 갈망과 자본주의의 하강이 만들어낸 비극을 통해 현대사회의 어둠을 생생하게 그려냈다.
죽음본능	제드 라벤펠드	현대문학	월 가의 폭탄 테러 사건을 중심으로 인간의 탐욕과 파괴 본능을 추적한다. 작가는 법학자다운 치밀함으로 미해결로 남아 있는 비극적인 미스터리를 탐구하고 있다.
7년의 밤	정유정	은행나무	실수로 인한 살인이 불러온 파멸, 선과 악, 사실과 진실 사이의 이면, 결코 놓칠 수 없는 삶에 대한 의지 등의 묵직한 소재들을 치밀한 이야기로 풀어놓는다
노는 만큼 성공한다	김정운	21세기북스	잘 노는 사람이 청약적이고 성공한다는 막연한 주장을 다양한 문화심리학적 개념들을 통해 자세하고 알기 쉽게 설명한다.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니콜라스 카	청림출판	인터넷 세상에서 링크와 하이퍼텍스트로 이어진 정보를 따라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흘러 다니는 우리의 사고를 집중 조망한다.
나는 세계일주로 경계를 배웠다	코너 우드먼	갤리온	회사를 박차고 나온 역대 연봉 애플리스트의 삶이 있는 세계 경제 체험기
사람의 마음을 얻는 법	김상근	21세기북스	사람의 마음을 얻고, 앞에서 끌어당김으로써 위대한 역사를 펼쳐낸 메디치 가문 사람들의 시선을 끌려와 세상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논의한다





★2012 INCHEON  
PENTAPORT ROCK FESTIVAL  
AUG. 10-12

## 더위탈출 ‘뮤캉스’ 로 (Music+Vacance)

가만히 있어도 등줄기에 땀이 주루룩! 찜통 같은 더위에 짜증이 나기 일쑤다. 이럴 땐 정서진으로 가보자. 더위보다 더 뜨거운 'Hot'한 음악이 기다리고 있다. 음악을 사랑하는 이방인들과 비가 오면 오는대로, 태양이 작열하면 작열하는대로 떴창과 함께 열정을 공유하고, 음악으로 자유롭게 웃ות이 하나 될 수 있는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이 여름 한복판에서 시작된다.

글. 김윤경\_본지 편집위원

올해 7회를 맞이하는 펜타포트는 2011년부터 아츠, 프린지, K-POP 페스티벌 등과 통합된 '인천펜타포트음악축제'로 재탄생하여 모든 음악을 아우르는 국내 최대의 음악축제로 거듭났다. 그간 실적과 국내 대표 페스티벌의 발전가능성을 인정받아 문화체육관광부의 '유망축제'로 지정되기도 했다.



뜨거운 태양이 작렬하는 여름, 인천으로 모이자. 국내 어느 페스티벌 무대에서도 만날 수 없는 '펜타스러운' 라인업. 그리고, 음악으로 허용되는 모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2012 인천펜타포트음악축제가 8월 3일부터 9월 23일까지 인천 전역에서 열린다.

**기간** : 8월 3일(금)~9월 23일(일)

**장소** : 정서진, 경인 아라뱃길, 문학경기장, 인천터미널 야외 광장,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부평아트센터 등 (www.pentaport.co.kr)

### 소리내어 부르고, 신나게 발 구르자\_ 인천펜타포트락페스티벌

따가운 햇볕 아래 땅을 울리는 음악 소리에 맞춰 땀 준비가 되었는가. 올해도 인천 펜타포트락페스티벌이 어김없이 록음악 팬들을 찾는다.

2012 펜타포트는 출연진이 화려하다.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스노우 패트롤 (Snow Patrol)과 매닉 스트리트 프리처스 (Manic Street Preachers) 등이 헤드라이너로 출연하고 국내 하드코어씬의 강자 바세린과 헤비메탈의 거성 크래쉬, 일본의 하드코어 밴드 팩트(FACT), 이모펍크 밴드 콜드 레인(Cold Rain), 폭발적인 무대매너의 일렉트로닉 듀오 크리스탈 캐슬(Crystal Castles) 등이 포함돼 쇼위 '달리는 음악'의 대거 등장장을 예고하고 있다.

여기에 소울 펑크 밴드 인스펙터 클루조와 국내 여심들을 꽉 잡고 있는 아트 오브 파티스, 안녕바다, 이스턴 사이드 킥, 바이 바

이 배드맨, 좋아서 하는 밴드 등 펑크, 메탈, 개러지와 같은 다양한 록 장르마다 걸출한 아티스트들이 전면에 포진해있다.

특히, 올해는 KBS '탑밴드 시즌 2'와 함께 준비한 '탑밴드 리얼라이브 스테이지(TOP BAND REAL LIVE STAGE)'가 펼쳐져 눈길을 끈다. 첫 날 금요일 메인 무대에서는 탑밴드 8강 진출자들의 스페셜 무대가 이루어지며, 심사위원인 신대철, 송홍섭, 김도균, 김경호가 밴드들과 함께 만드는 콜라보레이션 무대도 마련되어 있다. 시즌에서 눈에 띄는 활약을 보여준 특식과 게이트 플라워즈 또한 특별 출연하여 탑밴드를 통해 한층 성장한 무대를 보여줄 것이다.

우리나라의 원조 록 페스티벌이자 대표 음악축제로 자리 잡은 펜타포트. 올해는 정서진 인천여객터미널로 옮겨 더욱 쾌적한 환경을 제공한다. 행사 기간 티켓 구매자에 한해 여객선 이용이 가능하며 행사장 입구에서 하선이 가능하여 이용객들에게 편안함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기간** : 8월 10일(금)~12일 / **장소** : 경인아라뱃길 인천터미널(정서진) / **티켓** : 펜타포트 프렌즈 티켓 (기간한정 10%할인) 6월 1일~7월 30일 오후 5시 / **예매** : 인터파크 티켓 1544-1555(ticket.interpark.com)



### 음악 속으로 풍덩! 몸을 맡기자\_ 인천펜타포트음악축제

인천펜타포트음악축제(Incheon Pentaport Music Festival)가 월미도, 정서진, 예술회관 등 인천지역 내 각 공연장 및 야외특설 무대에서 개최된다. 특히, 9월 8일 문학경기장에서 펼쳐지는 K-pop 한류관광콘서트는 음악도시 인천의 여름을 뜨겁게 달구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프린지페스티벌(Fringe Festival)은 8월 3일부터 5일까지 월미도 음악분수 특설무대에서 인디음악과 신인 음악인들, 밴드들의 다양한 퍼포먼스와 다채로운 음악공연으로 열린다.

뮤직인아츠페스티벌(Music in Arts Festival)은 9월11일부터 22일까지 '펜타포트 초이스', '메이드 인 펜타포트'등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시민들과 예술인들이 한데 어우러지는 공공축제의 형식으로 펼쳐진다.

또 8월 10일부터 12일까지는 아시아 6개국 10개 내외의 공연팀과 국내외 레이블사 20팀이 참가하는 '아시아 스팟 라이트'가 진행된다. 참여 아티스트는 일본의 가차릭 스피, 인도네시아의 모카, 중국의 조커 등이다.

**Tip** 청중평가단이 되면, 락페스티벌 티켓이나 뮤직인아츠페스티벌 프리패스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평가단이 되려면 펜타포트음악축제 공식홈페이지(www.pentaport.co.kr)나 네이버 카페(cafe.naver.com/2012pentaport)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이메일(bloodkk@idtc.co.kr)로 제출한다.



### 2012 펜타포트 무대가 달라졌다!!

**PENTAPORT STAGE (Main Stage)**  
펜타포트 무대의 메인 스테이지로, 가장 크고 웅장한 위용을 자랑한다. 동시간 최대 2만여 명을 수용 가능한 공간으로 가로 60m, 높이 20m의 초대형 무대가 설치된다.

**Dream Stage (2nd Stage)**  
국내외의 주류, 비주류 뮤지션들이 뒤섞여 다양한 음악적 실험을 보여주는 자리로 구성되는 스테이지로, 매일 저녁 10까지 라이브공연이 펼쳐진다.

**LAKESIDE Stage (3rd Stage)**  
올해 처음으로 꾸며지는 정서진 행사장에 마련되어 있는 수변 무대로, 어쿠스틱 밴드들과 더불어 대중적인 뮤지션들이 대거 출연한다.

**PLAY GROUND Midnight**  
펜타포트를 찾는 사람들에게 공연 외의 즐거움을 얻어갈 수 있는 유쾌한 공간이다. 라이브 페인팅 등의 미술 퍼포먼스가 이어지며 낭만과 추억의 캠프파이어가 새벽까지 이어진다.

**CAMPING ZONE**  
별도의 캠핑존이 설치돼 있어 여름휴가 기분을 만끽할 수 있다. 공연 외에 다양한 부스에서 체험행사가 열린다.





INCHEON

## ‘젊음의 열정’ 세계로 펼쳐라

송영길 시장이 대학생 기자들과 만나 인천의 재정위기, 청년취업 및 창업, 젊은이들의 고민거리를 함께 나누며 서로의 생각을 모으는 자리를 가졌다. 시는 7월 민선5기 제2주년을 맞아 ‘인천시장과 대학생기자들과 청춘간담회’를 지난 6월 19일 인천시청 민원동 5층 옥상정원에서 열었다. 송영길 시장은 젊은 학생들과 함께 호흡하고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양복이 아닌 시원하고 편안한 쿨 비즈니스 의류인 ‘휘들웃’을 입었다. 학생기자들은 평소 궁금했던 인천의 문제들에 대해 질문을 쏟아냈고 인천이 처한 어려움에 공감을 표실했다. 대학생 기자들과의 청춘간담회는 푸릇푸릇한 나무와 풀, 꽃이 가득해 여름더위를 식히는데 안성맞춤인 시청 민원동 옥상정원에서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했다.

글, 이용남\_본지 편집위원 사진, 안영우\_자유사진가

### “20대엔 세계무대에서 공부하고 싶었다”

**송영길 시장** 반갑습니다. 저도 대학 다닐때 학보사 기자생활을 조금 했었고,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지 편집장, 노동운동할 때 운수노보 편집인을 한 적이 있어서 여러분과 같은 활동을 했던 인연이 있습니다. 기자활동 하는 거 재미있으세요. 아무래도 다른 학생들보다는 돌아가는 상황을 좀더 많이 알게 되지요. 인천시장으로 있으면서도 옥상정원은 처음 와 봤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정원이 예쁘네요. 자주 이용해야겠어요. 궁금한 것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정현명** 시장님께서 다시 스무살로 돌아간다면 가장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지, 하지 못해 아쉬웠던 일은 무엇인지요.

**송영길 시장** 저는 유학을 가고 싶었습니다. 어릴적부터 국제문제에 관심이 많아 외교관이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때는 5·18 광주민주화항쟁으로 인해 유학은 고사하고 타임즈, 뉴스위크만 봐도 학생운동에서 이탈해서 자기 먹고사는 데 전념하는 것으로 오해받기 일쑤였습니다. 내심 공부하고 싶어도 그러기 어려웠는데 스무살로 돌아간다면 유학가서 세계를 돌아보고 싶습니다. 시대가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때는 경제성장기라 아르바이트도 많았고, 저도 돈 많은 친척집에 입주해 과외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딸도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돈은 적고 고생만 하는 것 같아 안타까워요. 지금은 민주화가 되고 국제화되어 무엇을 찾고 정보를 모으는데 제약이 없습니다. 우리때는 정신적으로 억눌려 있어, 하고 싶은 것을 마음놓고 하는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박태준 가천의과학대학 학보사 편집장(컴퓨터공학과 3), 성슬기 경인여자대학교 학보사 편집장(e-비즈니스학과 2), 정현명 인천대 학보사 편집장(행정학과 3), 이승희 인하대 방송국 국장(정치외교학과 3), 한다운 재능대 학보사 기자(사진영상미디어과 2), 정인걸 인하공업전문대학교 학보사 취재부장(호텔경영학과 2)

간담회  
참석자



**이승희** 3~4년전쯤 나왔던 보도에 의하면 인천에서 대학을 나온 학생들이 다른곳에서 취직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인천시에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송영길 시장** 청년일자리에 관심이 많습니다. 일단 중소기업에 인턴자리를 만들어서 중소기업에 많은 청년들을 입사시키려 하며, 우리시도 방학을 이용, 인턴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청년창업을 지원하고 있는 제물포스마트타운에서 이제까지 120명이 창업했고 지금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물포스마트타운은 옛 인천대에 세워집니다. 이곳에 청년창업센터를 조성하면 창업의 메카가 될 것입니다. 일자리는 본인들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중소기업은 아직도 일손이 부족해요. 현장을 기피하지 않고 열심히 하면 간부사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아시아경기대회 서포터즈 양성입니다. 저는 행사를 치를 때 원칙이 '행사는 가고 사람은 남는다'라고 생각합니다. 행사를 통해 어떻게 사람들이 만들어지고 성과는 무엇인지 생각해 봅니다. 아시아경기대회를 통해 시각을 아시아 전체로 확대하고 사업 마케팅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올해도 서포터즈 수를 계속 늘려갈 겁니다. 잘하는 서포터즈에 대해서는 현지기업에 인턴 채용 또는 여행도 보내줄 계획입니다.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취업, 철저히 준비하면 경쟁력 충분”**

**정인걸** 대학생들이 중소기업의 현장을 잘 안 간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엔 중소기업에서도 어느 정도 학벌이 되는 사람들은 잘 안뽑는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직원을 키우면 대기업에서 빼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 그래서 고졸 위주로 뽑는다고 하던데요.

**송영길 시장** 취업은 사람의 의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학력보다는 적극적으로 해보겠다는 자세입니다. 회사와 나의 준비된 만남이 필요합니다. 요즘은 인터넷이 잘되어 있어 가고 싶은 회사의 기업, 제품, 시장조사를 잘해서 면접에 임하면 인터뷰를 하는 사장은 당연히 감동을 받습니다. 깊이 고민한 사람과 그냥 뽑히려 온 사람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인천에 세계적인 중소기업이 많습니다. 저 같으면 그런 기업에 진짜 나를 베풀고 싶어질 것 같아요. 중소기업 사장들의 하소연이 사람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진짜 필요한 사람은 찾기가 어려운데요. 그래서 제가 인천에 있는 세계적인 강소기업 책을 출간할 계획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세계를 뚫고 나가는 중소기업을 보고 공부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태준** 얼마전 버스를 탔는데 버스요금이 인상 됐더군요.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월급은 작년과 올해가 똑같아요. 임금은 같은데 버스비는 오르고 학생 입장에서는 힘듭니다. 버스비가 계속 오르면 임금도 올려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송영길 시장** 아시다시피 유가가 인상됐고 버스 준공영제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번 버스요금 인상은 버스기사들의 임금을 보존해주는 측면이 큼니다. 우리시도 버스 준공영제운영에 시 예산이 1천억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버스는 공공서비스 영역이기에 수익성이 없고 적자가 나더라도 해야 합니다.



정현명 인천대 학보사 편집장



정인걸 인하공업전문대학교 학보사 취재부장



**정현명** 인천대 제물포캠퍼스에 청년창업센터가 조성된다고 하셨는데 사범대 캠퍼스가 나가는 것인지 궁금하고, 인천대 주변은 대학가로 불리기엔 황량한데 대학 거리조성에 대한 의견, 대학신문들의 통폐합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학신문, 새로운 매체 활용하면 좋을 듯”**

**송영길 시장** 청년창업센터는 인천대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것입니다. 인천대 앞 대학가 거리조성은 세계적인 음식문화 거리와 레스토랑 조성을 경제청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생들에게 종이신문이 꼭 필요할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많은데 대학생들은 스마트폰이나 앱으로도 신문을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얼리어댑터로 나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시에서는 전국 최초로 올해 말 SNS방송국을 개국합니다. 시민들이 동영상을 찍어 유튜브에 올리듯이 주변의 일상을 촬영해 보내주면 우리시 방송국에서 방영합니다. 시민이 참여하고 소통하는 방송국이 될 것입니다.

**정인걸** 외국 대학신문의 경우 로컬 성격을 띠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신문을 로컬시스템으로 바꿔 지역소식도 신고 시민들의 참여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송영길 시장** 외국의 경우 대학자체가 폐쇄된 공간이 아니고 공원이나 시설 등을 시민과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대학도 대학공간을 대학생과 시민이 함께 사용합니다. 대학캠퍼스를 통해 일반인과 소통하고 있는거지요. 대학신문의 경우 여러 가지 앱을 다운받고 SNS 환경을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현명** 내년부터 인천대가 국립인천대로 새로 출범하는데요. 국립인천대의 미래를 어떻게 보시나요.

**송영길 시장** 국립대 전환은 잘된 일입니다. 법인화되는 국립대는 서울대, 카이스트밖에 없어 그런 수준까지는 발전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전에 인천시와 중앙정부가 맺은 MOU를 보면 인천대는 국립대 전환 5년 뒤부터 정부가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 입장에서는 그런 조건이면 국립대 전환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시는 종전대로 지원할 것입니다.



**성슬기** 인천시 재정이 어려운데 송도, 청라 신도시 조성과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개최로 인해 재정이 많이 어려워져 시민이 힘들다고 하는데 해결방안은 있나요.

**송영길 시장** 우리시에 부채가 많습니다. 돈이 들어오면 갚으면 되는 데 세수는 점점 줄어 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작년에 비해 올해 세수가 5천억 덜 거뒀습니다. 지방세는 마이너스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부동산경기는 완전히 죽었습니다. 우리 인천은 지금 쓰리쿠션을 맞은 상태입니다. 그간 쌓인 부채, 경기침체,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도시철도2호선 건설이 3대 요인입니다.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도 지방정부 혼자서 할 수 있는 수준은 이미 넘어섰기에 평창동계올림픽과 차별하지 말고 같은 수준으로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박태준** 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을 건립하면 이후 경기장 유지보수 비용이 많이 들고, 2호선이 지나가는 지역도 사람이 많이 사는 곳은 아닌 거 같습니다. 도시철도, 경기장 건설에 돈도 많이 들고 유지하기도 힘들어 지면 시민들의 부담이 커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송영길 시장** 지하철은 1호선도 적자입니다. 일일 40만명이 이용해야 손익분기점이 되지만 시민 교통복지 차원에서 감수하는 것입니다. 2호선도 적자가 예상되지만 무인선이고 경전철로 설계해서 예산을 최대한 줄였습니다.

서구 주경기장은 이익이 발생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문학경기장은 사후 활용도를 생각하지 않아



박태준 가천의과학대학 학보사 편집장



이승희 인하대 방송국 국장



한다는 재능대 학보사 기자



성슬기 경인여자대학교 학보사 편집장

영화관이 들어오지 못하지만 서구 주경기장은 설계 층고를 8m로 했고 파티션을 써서 전시, 영화관, 마트 등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또 서구쪽은 시민 편의 시설이 너무 없습니다. 지역균형상 지을 수밖에 없었고 사후 이용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성슬기** 초중고 학교폭력이 이슈입니다. 얼마 전 초등학교에서 화재사건이 있었는데 학교폭력 해결 방안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인가요

**송영길 시장** 학교폭력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처벌은 둘째문제고, 아이들에게 교육을 할 수 있는 동영상을 만들어 폭력 피해학생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일상이 망가지는지를 생생히 보여주는 영상을 만들어 보여주면 더 실감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여러분은 세상의 보석… 노력하는 삶 살길”

**정인걸** 대학생들이나 젊은이들에게 바라는 것이나 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송영길 시장** 긍정적으로 많이 생각하고 특히 대학생 시기는 마음만 먹으면 뭐든 할 수 있는 가능성과 젊음이라는 자산이 있습니다. 인터넷 바다에 들어가면 백악관에서 오바마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러시아 푸틴대통령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리스는 왜 저런 상황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영어공부도 원어민 발음을 들으면서 공부할 수 있는 행복한 조건입니다. 저야 정책당국자로서 학생들의 취업, 어려움을 해결해야 하지만 부모된 입장에서보면 요즘은 너무 너무 공부하기 좋은 세상입니다. 자기 의지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으니 열심히 인생을 살기 바랍니다. 오랜 가뭄인데 오늘은 비가 올 것 같습니다. 학생 여러분들이 행운을 몰고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행운의 레인메이커입니다.



### | 간담회를 마치고



송영길 시장과의 대화를 마친 대학 기자들은 인천시장이 일하는 집무실을 보고 싶어했다. 송 시장은 자신이 시정에 대해 고민하고 좋은 정책마련을 위해 애쓴 흔적이 고스란히 있는 집무실을 공개했다. 집무실은 더웠다. 6월 19일 인천의 낮 최고 온도가 33도였다. 인천에 100년만에 찾아온 무더위였지만 집무실은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에어컨을 틀지 않아 학생들은 연신 땀을 흘려야 했다. 송시장은 학생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도중 집무실 액자에 걸린 옛 성현의 글귀를 소개했다. '희노애락에 즉발적으로 대응하지 말라'는 인생의 좌표를 삼을 만한 내용이었다. 송시장은 학생들에게 '여러분 나이에 못할게 뭐냐. 뭐든 할 수 있는 때다'라며 학생들을 격려했다. 학생들은 시장과 기념촬영을 마지막으로 시장과의 간담회 일정을 끝냈다.



SUN	MON	TUE	WEN	THU	FRI	SAT
<p><b>1</b></p> <p>2012 송대관&amp;태진아 40주년 기념콘서트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2시, 5시 30분 VIP석 9만19천원, R석 8만18천원, S석 7만17천원, A석 6만16천원 ☎ (주)공연마루 1588-0766</p> <p>전래동화음악교육극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전 11시, 오후 2시, 4시 전석 2만원 ☎ TK컬처 070-8773-3733</p>	<p><b>2</b></p> <p>일요국악상설공연 “열쑤” 2011최고연주단초청공연 연희집단 ‘The 광대’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오후 7시 / 무료 ☎ 인천광역시</p>	<p><b>3</b></p> <p>제23회 이간음악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30분 / 전석무료 ☎ (주)이건창호 760-0780</p> <p>Kyung-mi Lee&amp;Hye-rim Lee Piano Duo Recital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30분 / 전석 1만원 ☎ 이경미 010-3065-7527</p>	<p><b>4</b></p> <p>황금 토끼 〈출으로 소통하다-현대 춤의 이해〉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오후 7시 / 무료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420-2733</p>	<p><b>5</b></p> <p>제17회 여성주간기념식 및 문화 공연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1시 / 초대 ☎ 인천광역시 여성정책과 440-2693</p> <p>버블링 코미디- 퍼포디언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30분 / 전석 1만원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인천지부 865-1120</p>	<p><b>6</b></p> <p>인천가톨릭남성합창단 제23회 정기연주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8시 / 무료초대 ☎ 인천가톨릭남성합창단 010-2040-7977</p> <p>춤, 가락, 소리가 만났다. 부평문화사랑방 오후 7시 30분 / 3천원 ☎ 505-5995</p>	<p><b>7</b></p> <p>양상블 디토 〈백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5시 R석 5만원, S석 4만원, A석 3만원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1588-2341</p> <p>인구주간기념 이야기 마술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2시 / 초대 ☎ 보육정책과 440-2752</p> <p>황금 토끼 〈인천시립합창단의 한 여름 밤의 콘서트〉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오후 7시 / 무료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420-2733</p>
<p><b>8</b></p> <p>노종선풍물인생 40주년 기념공연 〈일향〉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4시 / 초대 ☎ 인천풍물연구보존회 872-3012</p> <p>일요국악상설공연 “열쑤” (사)한국여성국악예술협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오후 7시 / 무료 ☎ 인천광역시</p>	<p><b>9</b></p>	<p><b>10</b></p> <p>임산부와 함께하는 태교음악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2시 / 초대 ☎ 보육정책과 440-2752</p>	<p><b>11</b></p> <p>인천시립교향악단 제319회정기 연주회 Piano &amp; Pianist Series III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30분 R석 1만원, S석 7천원, A석 5천원 ☎ 시립교향악단 1588-2341</p>	<p><b>12</b></p> <p>인천시립합창단 제131회정기연주회 〈한국 합창의 향연〉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30분 / 전석 1만원 ☎ 시립합창단 1588-2341</p>	<p><b>13</b></p> <p>황금 토끼 〈퓨전타악그룹 ART와 함께하는 타악콘서트〉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오후 7시 / 무료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420-2733</p>	<p><b>14</b></p> <p>제21회 인천무용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5시 / 초대 ☎ 인천무용협회 865-5474</p> <p>황금 토끼 〈인천시립교향단의 환타스틱스〉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오후 7시 / 무료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420-2733</p>
<p><b>15</b></p> <p>제21회 인천무용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5시 / 초대 ☎ 인천무용협회 865-5474</p> <p>일요국악상설공연 “열쑤” 타투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오후 7시 / 무료 ☎ 인천광역시</p>	<p><b>16</b></p>	<p><b>17</b></p> <p>우크라이나 호펜니츠키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 / 초대 ☎ 인천국제교류센터 451-1753</p> <p>유쾌한 클래식 ‘Zamstick’ 부개문화사랑방 오후 7시 30분 / 3천원 ☎ 507-5996</p>	<p><b>18</b></p> <p>인천&amp;아츠 커피콘서트V 파르멧 엑스와 함께하는 조윤범의 파워클래식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2시 / 전석 1만원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1588-2341</p>	<p><b>19</b></p> <p>미추홀! 젊은 국악이 속삭이다.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2층 씨리재틀 오후 7시 / 무료 ☎ 518-1511</p>	<p><b>20</b></p> <p>황금 토끼 〈멋진 네 남자의 아름다운 하모니〉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오후 7시 / 무료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420-2733</p> <p>컬처콘서트 부평문화사랑방 오후 7시 30분 / 3천원 ☎ 505-5995</p>	<p><b>21</b></p> <p>어린이 연극 〈갯벌피리〉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2시, 오후 2시, 4시 전석 2만원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1588-2341</p> <p>황금 토끼 〈인천시립무용단의 율록볼록 퍼플플레이〉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오후 7시 / 무료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420-2733</p> <p>김우석 판타지매직쇼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2층 씨리재틀 오후 2시, 5시 / 6천원, 학생 무료 ☎ 760-3457</p>
<p><b>22</b></p> <p>어린이 연극 〈갯벌피리〉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전 11시, 오후 2시, 4시 전석 2만원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1588-2341</p> <p>일요국악상설공연 “열쑤” 국악신나막단 ‘심향’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오후 7시 / 무료 ☎ 인천광역시</p>	<p><b>23</b></p>	<p><b>24</b></p>	<p><b>25</b></p>	<p><b>26</b></p>	<p><b>27</b></p> <p>황금 토끼 〈달뜨는 감장-그루브 팝 레게콘서트〉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오후 7시 / 무료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420-2733</p> <p>자연의 소리, 상치밭은 지루를 위로하다 부평문화사랑방 오후 7시 30분 / 3천원 ☎ 505-5995</p>	<p><b>28</b></p> <p>김범수 쇼오케스트라 전국투어콘서트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3시, 7시30분 VIP석 11만원, R석 9만19천원, S석 8만18천원, A석 7만17천원 ☎ (주)공연마루 062-528-7880</p>
<p><b>29</b></p> <p>어른방학특집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5시 청소년 1만원, 일반1만5천원 ☎ 인천신포니에타 816-7257</p>	<p><b>30</b></p>	<p><b>31</b></p> <p>2012미추홀! 젊은 국악이 말하다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8시 / 초대 ☎ 한국국악협회인천지회 875-4644</p>				

**일시** 7월 11일(수) 오후 7시 30분 **장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R석 1만원, S석 7천원, A석 5천원 **문의** 엔티켓 1588-2341

한국 합창계의 가장 니영수 지단을 만난다. 니영수 지휘자는 한국적 창법 력해왔으며, 아마추어 수준의 로 정착되도록 헌신한 합창계 한국합창 명곡들의 흐름을 한 이번 공연에서는 〈한국 합창 에 걸맞게 ‘달궁구’, ‘몽금포타’ 진달래꽃’, ‘산 낙자를 위하여’ 등 국산합창 든 주조같은 운

A portrait of a middle-aged man with dark hair, smiling. He is wearing a white suit jacket over a white shirt and a dark tie. He is seated, with his hands resting on his lap. The background is a plain, light-colored wall.

커피콘서트의 7월 공연은 개성 있고, 애플의 프레젠테이션 스타일로 펼쳐진다.

공연, 축제, 방송 등 다방면에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이 시대 시중주단' 파르텟엑스와 리더와 대중음악을 넘나드는 파격 애니메이션, 클래식을 한번에 표 레퍼토리를 들려준다.

· 01일~05일	제15회 환경기념품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전시실
· 01일~05일	제16회 박호식 개인전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미추홀전시실
· 03일~17일	동 · 서양 표현주의 작가展 /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가운갤러리
· 13일~9월 16일	2012 플랫폼 페스티벌 & 오픈스튜디오 (인천 앞바다에 왜 사이다가 뗏을까?) / 인천아트플랫폼
· 19일~29일	박승우 수채화展 /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가운갤러리
· 20일~31일	트릭미술관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전시실
· 20일~26일	제4회 청소년 희망의익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전시실
· 20일~26일	부자의 한미당 ‘脈’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미추홀전시실
· 27일~31일	사랑의 열매 아트페어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전시실

가루야' '가루야', '모래야 모래야' '가루, 모래, 물, 종이와 같은' 체험전으로 독보적인 장르를 개척한 작가가 이번에 진흙을 주재료로 '진'전을 만들었다. 이번 체험전에서는 흙을 만지거나 밟아보는 친화적인 놀이와 교육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일시** 6월 30일(토)~8월 26일(일)  
**장소** 부평아트센터 갤러리 꽃누리, 늘솔밭  
**티켓** 어린이 / 어른 균일가 1만 5천원  
**문의** 500-2000

A group of men in suits sitting on a bench. The image is dark and grainy, showing several men in dark suits and ties. One man is sitting on the left, another in the center, and a third on the right. They are all looking towards the camera. The background is dark and indistinct.

그림은 독특한 개성과 유려한 선율이 교차하는 스트라빈스키, 프로코피예프, 차이코프스키, 쇼스타코비치다.

여기에 2011년 그래미상을 수상한 파커 콰르텟 리더 다니엘 정(바이올린)과 2007년 에이비디 피쳐 커리어 그래นต์ 상을 수상한 다윈 장(베이스), 그리고 천재 관악주자로 주목 받는 무어슨 10대 김현(클라리넷), 함경(오보에)등 4명의 스페셜 게스트가 합류해 한층 더 견고한 앙상블을 들려준다.

**일시** 7월 7일(토) 오후 5시 **장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R석 5만원, S석 4만원, A석 3만원 **문의** 엔티켓 1588-2341

인간하면 딸꾹질을 시작하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그린 어둡고 괴이한 환상적인 모험과 신비로운 감동이 있다. 자라나는 아이에게 부족함을 느끼는 자신감과 친구를 배려하는 마음, **갯털피리**는 훈훈하고 아름다운 미래의 주인공이 꼭 봐야 할 작품이다.

**일시** 7월 21일(토)~22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4시  
**장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티켓** 전석 2만원  
**문의** 엔티켓 1588-2341





# 보이지 않는 세상 ‘보여’주다

글. 이용남\_본지편집위원 사진. 김보섭\_자유사진가



사진작가 이상봉(58)의 사진 속 주인공들은 모두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다. 본인도 장애를 가졌기에 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시선을 담아 장애인들을 찍고있다. 작가는 시각장애 학교인 인천해광학교에서 컴퓨터와 수학을 가르치는 교사다. 또 이 학교 사진동아리 ‘잠상’에서 사진을 지도한다. 일반인들은 앞도 못보는 시각 장애학생들이 사진을 찍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 의구심을 갖는다. 보이지 않기에 피사체의 느낌과 구도를 잡을 수 있을까 생각한다.

“촬영 전 아이들에게 촬영 대상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자신이 찍을 대상을 그려내지요. 상상으로 사진을 찍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이들이 찍은 사진이 주는 감동은 상상 이상입니다. 빠들고 찢렸어도 어느 사진보다 훌륭하고 임팩트가 있어요”

이 작가는 장애학생들이 사진을 통해 세상 밖으로 나와 자신을 표출하기를 바란다. 사진이 자신을 표현하는 도구가 되기를 희망한다. 작가가 장애학생들의 모습을 세상밖으로 내놓고 보여주기 위한 노력은 얼마 전 책과 영화로 결실을 보았다. 해광학교 학생들의 일상을 찍은 다큐멘터리 독립영화 ‘안녕, 하세요’가 부평 롯데씨네마에서 상영되고 있고, 에세이로도 출간되어 감동의 울림을 전파했다.

이 작가는 최근 큰일을 벌였다. 동구 금곡동 배다리에 인천의 유일한 사진갤러리를 오픈했다. 인천에서 사진만을 전시하는 갤러리다. 이곳에서 자신이 지도하는 해광학교 사진동아리 ‘잠상’사진전을 두 번 열었고 현재는 휴면사진으로 유명한 최민식 선생의 작품을 걸고 있다.

“인천에 사진작가도 많고, 작품들도 많이 발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한데 모아주는 공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에 사진전시 공간이 있는데 개인전을 열기엔 너무 큰 것 같고... 젊은 신인작가, 노인, 장애인 등 사진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 기회를 주는 등용문이 됐으면 합니다.”

이 작가는 세 살때 교통사고로 장애를 가졌다. 어릴적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늘 놀림의 대상이었고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그의 삶은 늘 도전의 연속이었다. 자신과 같은 장애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는 멘토의 역할을 하고 싶어 대구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순위고사를 봤지만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탈락했다. 장애인으로 그도 처음 사회 속으로 들어가기는 쉽지 않았다.

이 작가는 사진작가, 교사, 갤러리 관장, 문화운동가 등 다양한 명함을 갖고 있지만 주된 관심포인트는 여전히 장애인들이다. 사진촬영 대상도 자신이 가르치고 있는 해광학교의 학생들이다.

“오랫동안 장애인들에게 장애는 극복의 대상이었습니다. 일반인들도 장애를 극복한 장애인에게 열광하고 박수를 보냈구요. 장애를 극복한다는 것은 참 힘든일입니다. 장애인에게 편견과 동정이 아닌, 일상생활을 하는 일반인과 똑같은 모습으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내년 8월 백령도에 현대식 병원 개원



서해5도의 유일한 종합병원이면서도 제대로 된 수술실과 장비, 의료진을 갖추지 못해 응급환자 발생 시 육지에서 응급헬기를 요청해 환자를 이송해야했던 백령병원이 첨단수술실과 의료장비 등을 갖추고 내년 8월 새롭게 문을 연다.

우리시는 지난 6월 21일 백령도 진촌리에서 백령병원 신축 착공식을 가졌다. 새롭게 지어지는 백령병원은 건물 면적이 3천260㎡로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다. 총사업비는 65억원(국비 30억원, 시비 35억원)이다. 진료과목은 현재 5개 진료과(정형외과, 내과, 소아과, 응급의학과, 비뇨기과, 응급의학과, 산부인과)에 안과, 이비인후과 등의 2개과를 추가할 방침이다. 또 최첨단 수술실과 응급실센터 설치, 지역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한 종합건강검진센터, 노인환자를 위한 재활치료시설, 신종 감염병을 대비한 격리병동 신설 등 응급의료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의사와 간호사 등 전문 의료진도 확충한다는 구상이다. 또 백령도에 주둔해 있는 해병 6여단과도 협약을 맺어 중상환자들이 다수 발생했을 경우 이 부대에 있는 군의관들이 백령병원에서 수술과 진료 등을 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는 제대로 된 수술실과 장비, 의료진 등이 없어 간단한 맹장 수술조차도 육지에서 응급헬기를 불러 환자를 이송해야 했지만, 백령병원이 완공되면 응급처치를 받은 후 육지로 후송되는 고층과 기상악화로 이동을 하지 못하는 위기상황도 신속히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문의 : 시 보건정책과 ☎440-2712

인천AG조직위 ‘실내·무도AG’ 자원봉사자 모집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는 ‘2013인천실내·무도아시아게임’의 자원봉사자를 오는 10월 15일까지 모집한다. 모집분야 및 규모는 통(번)역을 포함해 경기지원, 의무, 미디어, 일반안내 등 13개 직종 약 3천명이다. 신청자격은 국적에 상관없이 한국어 소통이 가능한 만 18세 이상이며, 소속원 10명 이상의 단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선발은 서류 및 면접심사를 거쳐 내년 1월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며, 본인의 희망에 따라 2014 인천아시아게임에도 참여할 수 있다.

문의 : 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 ☎ 458-2618

인천가족공원 ‘정원형 수목장’ 조성

인천시설관리공단은 인천가족공원에 국내 최초로 정원형으로 꾸며진 공공 수목장을 조성했다.

문화경기장 수목 중에서 수형이 양호한 수목을 무상으로 공급받아 조성한 수목장에는 인천을 상징하는 배 모양의 현화대와 분수대, 다양한 야생화와 유족의 편의를 고려한 의자가 설치돼 있다. 부지 1천669㎡에 마련된 크기 2.5~5m의 추모목 71주에는 총 568기를 내년 3월부터 안치할 수 있다.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이번에 조성된 수목장의 이용실태 등 자체분석을 토대로 공원 내 수목장을 점차 확충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문의 : 인천가족공원 ☎510-1900



지하철에서 취업고민 해결!

인천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동시에 취업문제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우리시는 전국 최초로 인천교통공사와 함께 인천 도시철도1호선에 ‘달려가는 취업정보열차’를 편성해 지난 6월 18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취업정보열차는 1일 5~6회(오전과 오후 2~3회씩) 계양역~송도국제업무구역을 왕복운행한다.

고객편의를 위해 출퇴근 시간에는 취업정보만을 제공하며, 오후 시간대에는 구인·구직상담과 함께 취업정보도 제공한다. 또 객실 내에는 고용노동부 소속 전문 직업상담원이 취업지원사업 캠페인 활동과 함께 즉석 상담을 하게 되며, 객실 맨 앞 칸에는 별도의 공간에 상담좌석도 마련돼 있다.

문의 : 인천교통공사 ☎451-2114



임권택 감독, 2014 AG 개·폐회식 총지휘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는 지난 6월 19일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의 개·폐회식을 지휘할 총감독으로 임권택(76) 영화감독을 위촉했다.

임 감독은 이날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위촉 기자회견에서 “이전 대회에서 보여준 물량과 화려함이 아닌 감동과 배려를 통해 아시아인이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색깔을 보여주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조직위는 30여 명의 후보를 심사해 임 감독을 총감독으로 선임했으며, 임 감독은 내년에 우리시에서 개최되는 실내 무도 대회 개·폐회식 총감독을 겸임한다.

문의 : 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 ☎458-2373



‘한·중·일 청소년 음악교류 행사’ 참가

인천국제교류센터는 오는 7월 27~30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2012 TEENS ROCK ASIA IN CHINA’ 행사에 참가한다.

이를 위해 인천국제교류센터, 중국국제청년교류센터, 일본 이바라키현은 지난 6월 13일 베이징에서 한·중·일 협약을 맺었다.

이번에 개최하는 행사에는 한·중·일에서 선발된 중고생 밴드 13개팀이 공연할 예정이며, 청소년 자원봉사자 70명도 참가한다. 인천에서는 ‘2011 청소년 문화대축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청소년 밴드 3팀을 선발해 참가시킬 예정이며, 자원봉사자 고교생 10명도 참석한다.

한·중·일 청소년 음악교류 행사는 일본 이바라키현, 중국 베이징, 한국의 인천시가 순환 개최하는 행사로 2014년에는 우리시에서 열릴 예정이다.

문의 : 인천국제교류센터 ☎451-1751



서민금융지원센터 운영

우리시는 지난 6월 11일부터 종합민원실과 생활경제과에 ‘서민금융 종합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센터에는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공사 인천본부가 직원을 상주시키고 미소금융중앙재단, 신용회복위원회, 인천신용보증재단에선 직원을 주 1~2회 배치, 서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금융 지원 서비스를 한다.

지원 서비스에는 서민금융제도 안내, 불법 사금융 신고, 소액대출, 부채증명원 발급, 창업·운영자금 대출, 신용회복·개인회생·파산제도 안내, 소상공인 특례보증 등이 있다. 근무 시간은 매주 월~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문의 : 서민금융지원센터 ☎440-4228~9



<div data-bbox="238 148 616 428" data-label="Image"> </div> <div data-bbox="134 461 512 494" data-label="Section-Header"> <h3>한국뉴욕주립대, 학부과정 설립 추진</h3> </div> <div data-bbox="134 513 717 788" data-label="Text"> <p>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 내 한국뉴욕주립대가 학부과정 설립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뉴욕주립대는 지난 3월 컴퓨터학과와 기술경영학과의 대학원 과정을 개교한 바 있다. 대학 측은 지난 4월 교육과학기술부에 기술경영학과 학부과정 설립 신청서를 제출했다. 교과부 외국교육기관 설립심사위는 지난달 29일 대학을 방문, 시설에 대한 현장실사를 마쳤다. 대학은 교과부의 심사가 끝나고 승인이 나는 대로 모집 요강을 발표하고 학부생을 모집, 내년 3월 개교할 계획이다.</p> </div> <div data-bbox="134 801 460 832" data-label="Text"> <p>문의 : 경제자유구역청 ☎453-7083</p> </div>	<div data-bbox="909 148 1287 428" data-label="Image"> </div> <div data-bbox="808 461 1165 494" data-label="Section-Header"> <h3>유엔지속가능발전센터 송도에 개소</h3> </div> <div data-bbox="808 513 1391 788" data-label="Text"> <p>환경 및 지속가능발전 분야 아시아 최초의 유엔 교육연구기관인 유엔지속가능발전센터가 지난 6월 8일 송도에서 문을 열었다. 연세대 송도캠퍼스 내에 입주한 유엔지속가능발전센터는 유엔사 무국경제사회국(DESA) 산하기관으로, 국가별 지속가능발전전략(NSSD) 수립 및 이행 평가와 상호합의에 의해 진행되는 지속가능발전 지원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지난 2010년 인천에 유치한 지속가능발전센터 사무실 규모는 363㎡로 관련 기구에서 6명이 파견나와 근무한다.</p> </div> <div data-bbox="808 801 1120 832" data-label="Text"> <p>문의 : 시 환경정책과 ☎440-3512</p> </div>
<div data-bbox="134 898 418 931" data-label="Section-Header"> <h3>7월 1일부터 공원에서 금연</h3> </div> <div data-bbox="134 950 717 1257" data-label="Text"> <p>7월 1일부터 공원에서 흡연하면 5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우리시는 지난 2월 27일 제정, 공포된 '인천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선 인천대공원과 계양산 공원에서 흡연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흡연 예방과 금연 확산을 위해 관련 부서 직원들로 7개조(3인 1조)를 편성, 대상 공원에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오는 9월부터는 시 관리공원 8곳(중앙공원, 소래습지생태공원, 부평공원, 원적산공원, 월미공원, 문학공원, 청량공원, 관교공원)에서도 흡연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p> </div> <div data-bbox="134 1271 448 1302" data-label="Text"> <p>문의 : 시 보건정책과 ☎440-2725</p> </div>	<div data-bbox="808 898 1269 931" data-label="Section-Header"> <h3>사할린주와 공항·항만분야 등에서 협력 합의</h3> </div> <div data-bbox="808 950 1391 1327" data-label="Text"> <p>우리시는 지난 6월 23일 인천시청에서 공항과 항만의 개발, 경제자유구역 개발 모델, 인문·문화 협력에 이르는 다양하고 실질적인 협력 하기로 합의하고, 공동협력 합의문에 서명했다. 호로사빈 알렉산드르 바지모비치 사할린주지사는 이날 송영길 인천시장에게 사할린의 공항과 항만, 도시개발에 인천의 경험과 기술력 지원을 요청했다. 또 한국교통연구원은 향후 사할린 공항의 확장 개발에 대한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고 발전방향을 제안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한국 최초의 항공화물 전용항공사인 에어인천과 국적 항공사를 연계해 인천과 사할린간 항공화물 노선을 활성화시키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p> </div> <div data-bbox="808 1340 1159 1371" data-label="Text"> <p>문의 : 시 해양항공정책과 ☎440-4833</p> </div>
<div data-bbox="134 1431 540 1464" data-label="Section-Header"> <h3>청운대 인천 도화 캠퍼스 내년 3월 개교</h3> </div> <div data-bbox="134 1483 717 1792" data-label="Text"> <p>청운대 인천 캠퍼스가 예정대로 내년 3월 개교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6월 8일 수도권정비위원회를 열어 청운대 인천캠퍼스 설치안에 대해 원안가결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대학 측은 늦어도 올해 말까지 학교 부지 5만6천3여㎡와 학교 건물 3만5천여㎡를 갖추고 내년도 신입생 350명을 모집한다. 대학은 송도로 이전해간 인천대 자리에 들어서는 것으로 기존 대학 건물을 증·개축해 사용하게 된다. 이 캠퍼스는 대학 정규 과정 외에 산업체 위탁 교육 과정(정원 2천명)도 운영, 지역 내 16만여 명 세기업의 근로자 40만여 명에게 기술 전문교육을 할 수 있게 됐다.</p> </div> <div data-bbox="134 1806 421 1837" data-label="Text"> <p>문의 : 도시재생과 ☎440-4462</p> </div>	<div data-bbox="808 1431 1226 1464" data-label="Section-Header"> <h3>가족공원 내 '유휴 안치단' 사용규제 완화</h3> </div> <div data-bbox="808 1483 1391 1792" data-label="Text"> <p>우리시는 인천가족공원 내 봉안시설 중 유골반환, 합골, 타시설 이관 등으로 공실이 발생한 '유휴 안치단'에 대해 사용자 자격규제를 완화해 공급한다. 사용자 자격규제 완화는 유휴 안치단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한시적이다. 이에 따라 현재 '인천가족공원 내 봉안시설은 인천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다 사망한 자'로 규정돼 있으나 유휴 안치단(462기)에 대해서는 유족(연고자)이 인천시에 10년 이상 거주하거나 사망자가 인천시에 10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인천시 도시계획사업으로 분묘를 개장해 화장한 유골의 경우에 가능하다.</p> </div> <div data-bbox="808 1806 1120 1837" data-label="Text"> <p>문의 : 시 노인정책과 ☎440-2833</p> </div>

### 웅진군 선재·승봉도 '갯벌참굴' 양식

내년 6~7월께부터는 웅진군 선재도와 승봉도 일대의 청정 갯벌에서 참굴이 양식된다. 우리시는 내년 6월까지 영흥면 선재도와 승봉도 일대 갯벌을 활용해 참굴을 양식 육성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국비와 시비 등을 포함해 총 8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고 선재도 갯벌 20ha와 승봉도 갯벌 10ha를 확보해 수평망식의 갯벌참굴 시설 1만6천200세트를 설치할 방침이다. 시는 올해 농식품부로부터 갯벌참굴 양식 육성사업 최종 후보지로 선정된 2개 지역 어장에 대한 관련 시설공사를 오는 9월부터 시작, 내년 6월 중 완공한 뒤 참굴 종패를 입식할 계획이다.

문의 : 웅진군청 ☎899-2762

### 계양산에 '임격정 산책로' 만든다

계양구가 국토해양부로부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중 친환경·문화사업 분야에 국비 5억원을 확보했다. 해당 사업은 계양구 임학동 산7-4번지 일대 1만4479㎡ 면적에 자생식물원과 등산로, 편의시설, 운동기구, 전망대, 안내표지판 등이 들어서는 프로젝트다. 구는 여가복지 사업부지인 계양산이 조선시대 의적 임격정의 활동 무대였던 점에 착안해 임격정과 관련된 계양산 스토리텔링을 만들었고, 세부시설로 임격정 등산로, 체력단련장과 임격정 포토존 등을 설치하는 계획 등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 사업에 선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문의 : 계양구청 ☎450-5654

### 'SNS 시민 미디어 방송국' 설립 추진

우리시는 시민들이 개별 방송국을 만들어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를 송출할 수 있는 '인천 SNS 시민 미디어 방송국'을 설립한다. 시는 시민이 동호회 등 개별 방송그룹을 만들어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를 생성하거나 송출할 수 있는 양방향 방송시스템인 SNS 시민 미디어 방송국을 설립할 계획이다. 시민참여형 미디어 방송시스템 구축사업은 올해 방송통신위원회가 공모한 방송통신융합 시범사업으로 국비, 시비, 민간부담금 등 총 50억원을 투입해 내년 말까지 미디어 플랫폼을 구축하고 서비스 콘텐츠를 제작하게 된다. 시는 시스템이 구축되면 스마트폰, 디지털사이니지, 스마트TV 등 다양한 스크린의 방송환경을 시민에게 제공할 방침이다.

문의 : 시 경제수도정책관실 ☎440-3266

### '117학교폭력신고센터' 오픈

학교폭력 신고를 전담하는 '117 학교폭력신고센터'가 인천지방경찰청 청사 1층 내에 문을 열었다. 전국 17개소 지역 117센터 운영계획에 따라 설치된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에는 경찰, 교과부, 여성가족부 직원이 24시간 함께 근무한다. 인천117센터는 모든 학교폭력 신고를 접수해 경미한 사안의 경우에는 상담과 사후관리를 하고, 중대한 사안은 경찰의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 또 사안에 따라 교육지원청 단위로 설치돼 있는 'Wee센터'나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 설치된 'CYS-Net'로 연계해 사건을 상시적으로 전담 관리한다.

문의 : 인천지방경찰청 ☎1566-0112



1947년 송도유원지 일원



2011년 송도유원지 일원

## 강산이 변했다

왼쪽 사진의 다른 점은 무엇일까? 흑백과 칼라라는 차이점? 언뜻 보기에도 모양이 다른 두장의 사진은 실제로 같은 장소(송도)를 촬영한 사진이다. 다만 한 장은 1947년, 한 장은 2011년에 찍은 항공사진이다. 우리시는 지난 6월 21일부터 1947년, 1954년, 1966년에 촬영된 인천지역의 희귀 항공사진을 인천부동산광장(imap.incheon.go.kr) 인터넷지도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100일 동안 제공되는 이번 항공사진은 간척에 의한 인천 해안선 변천사를 1947년부터 2011년까지 한 눈에 볼 수 있으며, 고속도로와 일반도로는 물론 현재의 지명을 표시해 시민이 쉽게 관심지역을 찾을 수 있도록 했다.

문의 : 시 토지정보과 ☎440-4584



## 인천시 재정난 극복 시민과대화 열어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난 5월 29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유관기관·단체 등 시민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기홍 인천광역시의회 부의장의 진행으로 '인천시 재정난 극복을 위한 시민과의 대화'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정태욱 기획관리실장이 현재의 인천시 재정 문제의 발생 원인을 중심으로 재정상황을 설명하고, 이어서 그동안 시의회 차원에서 마련한 재정대책을 중심으로 인천광역시의회 홍성욱 기획행정위원장이 주제발표를 했다.

의회에서는 이번 대화를 통해 수렴된 각계 각층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정리하여 시 재정난이 슬기롭게 극복하도록 심도 있게 반영해 줄 것을 시에 전달할 계획이다.

## 인천YMCA 우수의원 선정

제6대 인천시의회 의원 38명을 대상으로 지난 2010년과 2011년도에 걸쳐 인천YMCA가 실시한 의정활동 모니터링 결과, 가장 우수한 의원으로 이한구·강병수·이재병·노현경·박승희·이용범·김정현·안병배·전용철·신현환 의원 등 10명이 선정됐다.

인천YMCA는 최근 시민사업위원회와 의정참여단 소속 회원 32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록 분석 △출석평가 △시정질의 평가 △의원발의 조례 △지역사회 활동가 평가 △홈페이지 및 SNS 평가 △언론 노출 평가 등을 통해 모니터링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전체 출석률은 2010년, 2011년 각각 94.8%, 91.2%로 타타나 최근 이전 출석률과 크게 차이나지 않았다. 100% 회의에 참석한 의원은 박승희·이용범·신현환·이수영·최용덕 등 5명이다.

## 대만 가오슝시의회 의장단 방문

대만 가오슝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의원 등 대표단 34명이 지난 6월 15일 인천광역시의회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2011년 8월 시의회 대표단의 가오슝시의회 방문에 대한 답방형식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친한파로 알려진 천리나 의원은 '2014 아시안게임 관련 건설사업 및 경제적 효과'와 '인천공항이 일류서비스공유구역과 중국 항구도시와의 차이점 외 자유치' 등에 질의하고 전향적인 관심을 나타냈다.

인천광역시의회와 가오슝시의회는 2009년 7월 5일 우호교류의향서 체결, 2010년 5월 4일 우호교류협정을 맺고 양도시 의회 발전과 경제, 문화, 스포츠 등 상호 관심사항을 중심으로 활발한 교류를 추진해 왔다.

## 영종지역 주요 사업장 점검

인천광역시의회는 영종지역에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장과 우기철 대비 배수 펌프장 현장 방문을 통하여 현안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는 의정활동을 펼쳤다.

시의원들은 지난 6월 7일(목) 의장, 김기홍(기획)·박승희(문화)·신현환(문화)·김정현(산업)·김영분(산업)·허인환(산업)·이수영(교육) 의원 등으로 현장방문단을 구성하여 중구 운서·운남·운북·중산동 일원 부근에 위치한 영종하늘도시 개발 사업현장과 영종 복합리조트 조성사업에 대한 현안 보고를 받은 후, 운북복합 레저단지 조성사업 등 3개소 현지 시찰을 실시했다.

또한, 남동구 고잔동에 소재한 남동 빗물배수펌프장을 현지 방문하여 현황 보고를 경청한 후, 여름철 우기대비 배수 펌프장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할 것을 현장 근무자들에게 당부했다.



## 성공적인 뷰티도시 조성 토론회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일자리 창출 기여

인천광역시의회 산업위원회는 지난 6월 11일 오후 3시 종합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뷰티기업·관련단체 및 시민 등 1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적인 뷰티도시조성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뷰티산업을 인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해 내수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뷰티상품을 인천의 명품으로서 브랜드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했다.

시의회는 토론회 개최를 통해 뷰티산업의 현실적인 정책방안을 도출하고 향후 정책수립 과정에 기여, 우리시가 뷰티산업의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홍성철 인천시 일자리창출과장이 주제발표자로 나서 '청년 및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한 뷰티도시조성을 위한 추진계획'에 대해 발표했고, 이어 박장서 동국대학교 화공생물공학과 교수는 뷰티제조업과 뷰티서비스업의 융합을 통한 뷰티산업 발전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 학교급식 개선방안 토론회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6월 22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학교급식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권용오 교육위원장을 비롯한 교육위원 및 이한구 친환경무상급식특별위원회위원장, 인천시관계자 및 교육청관계자, 학교장, 영양교사협의회회장, 학교운영위원장협회장, 학부모, 급식업체관계자 등 약 300여명이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금번 토론회는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학교급식의 질 개선과 인천시친환경무상급식지원조례가 제정되어 오는 7월 1일부터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설치·운영될 예정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에 대하여 알아보고 학교현장의 의견을 듣고자 마련했다.



## 2014 인천AG 지원촉구 1인시위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난 6월 8일 류수용 인천시의회 의장, 이강호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병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이용범 의원, 신현환 의원, 이재병 의원, 구재용 의원 등이 참여하 가운데 국회 앞에서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와 도시철도2호선에 대한 중앙정부의 책임 있는 지원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현재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와 관련된 총 비용은 2조 7,326억원인데, 우리시가 부담해야하는 비용은 1조 9,052억원이며 2014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지원비 139억원과 2013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 지원비 208억원을 포함하면 우리시는 총 1조 9,399억원을 부담해야하는 상황이다.

이에 시의회는 "2002 부산아시안게임은 36%, 평창동계올림픽은 75% 이상을 지원하면서 인천아시안게임 지원은 고작 20%에 불과하다. 유치 신청당시 중앙정부가 충분한 재정적 지원을 약속한 만큼 책임있는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 대학생 의정아카데미 열어

인천광역시의회는 차세대 정치지도자를 꿈꾸는 대학생들에게 지방의회의 역할과 방향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지방의회 체합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대학생 의정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인하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김용호 교수 및 한성민 조교수의 지도로, 인하대학교 학생 34명이 6월 1일 오전 10시부터 인천광역시 의회를 방문하여 의정홍보 영상물 시청, 의원과의 대화, 스피치관련 특강, 상임위 및 본회의 시연 등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모의 상임위원회 및 본회의에서 대학생들은 '인천광역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 등 3개 안건에 대해 열린 토론회를 연출했다. 또한 5분 자유발언에서는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한 월미은하레일 사업 등 '인천광역시 예산 낭비 방지'에 대해 언급했으며, '증가하는 다문화 가정에 대하여'라는 시정질문에서는 학습결손 및 편견과 차별로 인한 부적응에 대한 심도있는 질문을 하기도 했다.



# 생활정보

##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모집

탄소포인트제(저탄소 녹색통장)는 가정, 상업 등의 전기·수도 등의 사용량 절감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범시민 온실가스 감축실천 프로그램이다.

**직접참여** : 탄소포인트제도 홈페이지(www.cpoin.or.kr) 접속  
**서면참여** : '탄소포인트제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구 환경과 또는 주민자치센터에 제출 또는 팩스로 제출  
**문의** : 440-3435

## 주라기공룡탐험전 인천 체험 학습 프로그램

방학을 맞는 어린이들을 위한 체험프로그램이 열린다. 어린이들이 좋아 하는 공룡탐험전이다.

**전시기간** : 6월 23일(토) ~ 9월 2일(일) 72일간  
**관람시간** : 오전10시 ~ 오후6시 (5시 입장마감)  
**입장료** : 대인 10,000원, 소인 12,000원  
단체 8,000원, 24개월 미만 무료입장  
**장소** : 계양문화회관 전시장 및 야외전시장  
**주관** : 경향교육신문, (주)오케이네트웍  
**문의** : 543-3994(전시기획사무실)

## 2012년 인터넷 중독 기숙형치료학교

인천광역시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인터넷RESCUE스쿨은 2007년부터 현재까지 인터넷 고위험 사용자군을 대상으로 시행해온 '장기 기숙형 치료프로그램'이다. 인터넷 중독으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은 청소년과 선생님, 학부모들의 신청을 기다린다.

**운영일정**  
• 운영일자 : 8월 20일(월) ~ 31일(금), 11박 12일  
• 캠프장소 : 너리굴 문화마을(경기도 안성)  
• 대상자 : 남자 중학생  
• 참가비 : 10만원(식대비 보조금) ※ 차상위계층 이하 무료  
• 참가신청 : 전화접수  
**문의** : 721-2309, 721-2312

##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문화행사 개발을 위한 문화콘텐츠 아이디어 공모전

인천정보산업진흥원은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문화행사 개발을 위한 문화콘텐츠 아이디어 공모전을 연다. 관심있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

**공모주제**  
• (2014 인천 아시안게임 문화행사 개발을 위한) 문화콘텐츠 아이디어 공모전  
**공모분야** : 아이디어 공모  
•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기간 중 다양한 문화행사 아이템으로 활용  
• 창의적이고 유쾌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문화콘텐츠  
• 미디어를 기반으로 한 시민 체험형 콘텐츠 아이디어 공모

**공모분량** : 기획안 5P 이내(한글, 워드), 기획내용을 보완할 수 있는 스토리, 사진 및 그림 첨부 가능(별도 첨부, 분량제한 없음)  
**제출자료** : 출품신청서, 아이디어 기획(안) 1부, 작품파일(한글, 워드)  
※ 제출하는 파일명은 반드시 '출품제목\_제출자명.hwp(doc)'로 기재, 팀제출의 경우, 파일명에 팀원이름 모두 명시  
**접수방법**  
• 기간 : 7월 2일(월) ~ 24일(화)  
• 방법 : 이메일 접수 contents@it.or.kr(접수 후 반드시 유선 확인)  
• 문의 : 250-2173

## 영종도서관 7월 문화프로그램

영종도서관은 7월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으로 지역주민과 함께한다. 관심 있는 지역주민의 많은 참여 바란다.

7월 문화프로그램			
구분	프로그램명	기간	대상
전시	독서포토제너션, 책과의 눈 맞춤	7월 3일(화)~9월28일(금)	전체
	영종도서관 2012 어린이 동시화 展	7월 3일(화)~8월 31일(금)	전체
상시	어린이독서퀴즈, 골든 Book을 올려라	7월 20일(금)~31일(화)	초등
	빛그림루지개 "영상동화 읽어주기"	7월 7일, 21(토)	유아/어린이
	행복 전하는 동화배달부 - 찾아가는 동화 읽어주기	7월19일(목) 15:00-17:00	-
	도서선 선생님과 함께 떠나는 책나라 여행	매주 금요일 16:00-16:50	유아/어린이
특별	작은 천재 다빈치 - 2012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7월 7,14(토) 10:00-13:00	초등 3-4
	영종도서관 2012 북스타트(BookStart)	7월 6일(금)~10월 26일(금)	유아
	청소년 영어 Book Club	7월 12,19(목) 18:00-20:00	중등

**문의** : 745-6000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해찬나래 추가 모집

동구청소년수련관은 가정이나 학교에서 체험하지 못했던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을 위한 유익한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다.

**대상** : 2012년 중학교 1학년

프로그램	
교과학습과정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국사, 개별속제지도, 독서활동
주중체험과정	방송댄스, 모듬북, 영어연극/뮤지컬, 우쿨렐레, 창의력미술
주말체험과정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 사업, 자원봉사활동, 예술문화체험
생활지원과정	급식· 간식지원, 귀가차량지원,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상담, 장학사업

**참가비** : 전액무료

**문의** : 777~7942

## 2012 인천 문화콘텐츠 스토리텔링 공모전

인천정보산업진흥원은 인천 정명(定名) 600주년(2013) 기념해, '인천의 다양한 지명(地名)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공모전을 연다

**공모분야** : 스토리 공모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만화, 출판 등 문화콘텐츠 스토리  
**공모내용** : 인천의 다양한 지명(地名)을 활용한 원천스토리 및 시나리오  
**공모분량** : 5P이상, 스토리 내용을 보완할 수 있는 스토리보드(콘티), 사진 및 그림 첨부 가능(※단, 별도 첨부)  
**접수방법**  
• 접수기간 : 8월 20일 ~ 9월 11일  
• 이메일 접수 : contents@it.or.kr(접수 후 반드시 유선 확인)  
• 문의 : 250-2173

## 인천시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상호협력

인천시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시민들을 위한 금융제도에 대한 부족한 이해를 돕고 시민들의 금융비용 증가, 노후생활 불안정을 돕고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설립취지** : 주택담보대출, 주택보증, 주택연금 등 주택금융의 장기·안정적 공급을 촉진하여 국민의 복지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거, 지난 2004년 3월 설립됐다.

### 금융제도

• 보금자리론 :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 변동금리대출의 경우 금리 상승시 이자증가 부담을 전부 시민들에게 전가

## 도시철도로 떠나는 생태체험『곤충·파충류 체험학습 박람회』



인천교통공사는 아파트 숲에 둘러싸인 도시에서 볼 수 없는 희귀한 곤충·파충류들을 모아 인천문학경기장영역에서 '곤충·파충류 체험학습 박람회'를 개최한다. 200여종의 살아 있는 생물을 가까이에서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며 자연과 생명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누에고치를 활용하여 명주실을 뽑아보고 황소개구리, 미니돼지, 도둑게를 직접 잡아보고 방귀쟁이 스angk를 안아 보는 등 신나는 체험 잔치가 열린다. 인천을 처음 찾는 '곤충·파충류 체험학습 박람회'는 살아있는 곤충과 파충류 체험을 매개로 하여 인천시민들이 도시철도역을 생기가 넘치는 청정한 역으로 느끼고, 나아가 자연의 소중함과 생명체의 존귀함을 배우는 추억의 체험학습장이 될 것이다.

**행사기간** : 7월 13일(금) ~ 9월 2일(일)  
**행사장소** : 인천교통공사 문학경기장영역내 특별전시관  
**관람시간** : 10:00~18:00  
**주관** : 전북 부안곤충파충류영농조합법인  
**후원** : 전라북도교육청, 한국입양홍보회 인천지부  
**입장료** : 1만원(대인, 소인 동일), 단체할인(전화문의)  
체험프로그램 인증서 발급(창의적 활동 프로그램으로 등재)  
**홈페이지** : www.bugsfestival.com  
**문의** : 032-426-1109

→ 은행의 강력한 마케팅 때문에 시민들 대부분 변동금리(고금리)이용  
※ 주택대출 중 고정금리 비중 : 한국 7.4%, 미국 94%, 일본 14.5%]

• 전세자금보증 : 담보없이 전세자금을 해결할 수 있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보증제도  
- 전세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저리의 전세자금대출 지원 확대 필요  
※ 전년대비 전국 전세가격 상승률 : 7.1%(10년)⇒ 12.3%(11년)

• 주택연금제도 :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하여 주택을 근거로 국가적 차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노인복지제도  
- 집만 한 채 소유한 복지사각지대 노인의 소외문제 해결

**문 의** : 441-2170, 팩스 422-3060



울목도서관 7월 문화예술 행사

울목도서관은 여름 더위를 시원하게 해줄 문화행사를 연다. 시민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란다.

1주년 개관기념 행사

**행사명** : 울목도서관 개관 1주년(7월 8일) 기념행사  
**기간** : 7월 1일 ~ 31일  
**장소** : 울목도서관 내  
**대상** : 지역 단체(기관), 이용자 및 지역 주민 누구나  
**내용** : 울목도서관 1주년 생일잔치, 개관 1주년 기념공연  
울목도서관 사진전, 과월호 잡지 나눔행사,  
도서대출정지 해제 서비스, 도서관 에티켓 캠페인  
**문의** : 770-3802

울목도서관 7월 인문학 특강

**행사명** : 울목도서관 클래식 인문학\_스페인 가곡과 함께하는 돈키호테  
[2012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차오름 프로그램]

내용

일 시	고전 작품	강사	비고
7월 5일~26일 매주(목) 오후 2시	밤나무골(栗木) 다락방(多樂房) 문학교실	고전읽기	누구나
7월 7일~21일 매주(토) 오후 2시	클래식 인문학	스페인 가곡과 함께하는 돈키호테	청소년
7월 19일(목) 오후 7시	인문학특강 「비움+채움」	채 세상에 대한 관심과 어울림으로 소통하기	성인

**접수기간** : 7월 ~ 선착순 마감

**문의** : 770-3800

7월 어린이 프로그램

**행사명** : 울목도서관과 함께하는 북스타트  
**기간** : 6월~12월,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 오후 5시  
**대상** : 인천시 거주 만 18개월 이하 아가 및 부모  
**내용** : 1. 그림책 2권 북스타트 안내 책자, 책임어주기 가이드북,  
인천도서관 안내 리플릿 및 운영달력 증정  
2. 그림책 읽어주기 및 책놀이  
**신청방법** : 생애 최초 도서관 회원가입  
(주민등록등본 또는 건강보험카드 지참하여 본관 1층 안내데스크에서 신청)  
**문 의** : 770-3802

가족치료 위한 ‘웅알스 공연’

한구가정법률상담소 인천지부는 가족치료를 위한 공연을 연다. 관심있는 가족들의 참여를 바란다.

웅알스 공연-‘행복한 가정’ 가족치료를 위한 공연 ‘웅알스’

- 일시 : 7월 6일(금) 오후 7시 30분
- 장소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티켓 : 전석 1만원
- 문의 : 865-1120

살금살금 ‘도둑게’를 아시나요?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소래습지생태공원 전시관을 가면 생태관찰이 가능한 살금살금 ‘도둑게’생태관이 있다. ‘도둑게’는 우리나라의 게 중 나무를 타고 오르는 유일한 게로 강과 바다가 만나는 곳이나 냇가의 돌 밑 등에서 주로 서식한다. 도둑게라는 이름은 부엌이나 쓰레기통의 음식물을 훔쳐 먹는다 해서 생겨났다. 소주 빼고는 뭐든지 잘 먹기에 키울때는 사료 걱정 안해도 된다. 요즘에는 아이들의 정서를 고려해 도둑게를 키우는 가정이 많아지고 있다. 바닷물 필요없이 수돗물만 잘 갈아줘도 7~8년까지 살기도해 퐁당 이, 하늘소 키우는 것보다 훨씬 쉽고 재미 있다. 소래습지생태공원전시관 도둑게 전시는 방학을 맞은 어린이들에게 오감 만족은 물론 체험이 부족한 아이들의 생태 감수성을 일깨워 생명의 소중함과 신비로움을 깨닫게 하는 전시가 되고 있다.

소래습지생태공원 전시관 관람안내

- 관람료 : 무료
- 관람시간 : 오전 10시 ~ 오후 6시(5시까지 입장)
- 휴관일 : 매주 월요일 및 법정공휴일 다음날
- 문의 : 435-7076
- 홈페이지 : www.incheon.go.kr/sorea

통기타와 영화속 음악

미추홀 문화회관은 한여름의 시작인 7월에 2012년 3th ‘작은음악여행! 하우스 콘서트’를 연다. 이번 공연은 문화소외계층들과 함께 해 더욱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

**내용** : 제3회 - 통기타와 영화속음악 ▶ The Sky

**일시** : 7월 6일(금) pm 7:00

**장소** : 인천문화회관 소극장(수봉공원)

**입장료** : 무료(초대권 소지자에 한하여 입장가능)

**문의** : 765-0220, 0250

중장년층  
심·뇌혈관질환 주의



글. 강남규\_인천 나은병원 기획부원장  
응급의학 전문의

최근 급격한 산업화, 정보화에 따르는 신체적인 변화와 식습관의 서구화 등으로 많은 현대적인 질병이 발생하고 있다. 교통사고를 비롯하여 각종 재해의 증가 및 고령 인구의 증가에 따른 노인 환자 발생증가로 응급진료의 중요성이 크게 대두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직장인들 중 업무 스트레스가 많은 4,50대 연령층에서 갑작스러운 심·뇌혈관계 질환으로 인해 응급실을 찾는 환자가 늘고 있다.

의술이 고도로 발달된 이 시대에 웬만한 질병은 현대 의학으로 치유가 가능해졌고 인간의 수명은 하루가 다르게 연장되고 있다. 따라서 사람이 어느날 갑자기 원인 모르게 죽음에 이르게 되는 돌연사는 흔한 일은 아니며 심·뇌혈관계 질환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심·뇌혈관계 질환은 대부분 동맥경화증과 관련되어 있다. 특히 4,50대 연령에서 돌연사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동맥경화성 혈관질환은 심근경색과 뇌졸중이다. 심근경색은 심장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완전히 막힘으로써 심장근육이 손상을 입어 그 기능이 망가지는 상태를 말한다. 뇌졸중은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세포의 손상이 오고 그에 따라 신체장애가 나타나는 상태를 말한다. 우리의 생활수준이 높아져 기름진 육류의 섭취가 많아짐에 따라 우리 몸에 지방이 많아지면 저밀도 지질단백 LDL-콜레스테롤이 많이 생성되어 혈액 속을 떠다니게 된다. 이때 고혈압, 흡연 등으로 혈관이 자극을 받아 혈관 내 상처가 생기

면 LDL-콜레스테롤은 상처부위로 모여들어 혈전을 만들고, 이러한 혈전이 쌓이면서 혈관은 점점 좁아지게 된다. 이러한 현상을 죽상동맥경증이라고 일컫는데, 보통 10~20년에 걸쳐 혈관이 정상에 비해 약 70% 이상 좁아질 때까지는 아무런 증상 없이 서서히 진행된다.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당뇨병 등이 주요한 원인 위험인자다. 특히 환절기에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 동맥경화증에 의해 좁아진 관상동맥이나 뇌혈관이 더욱 수축되어 혈액의 흐름이 단절될 위험성이 커진다. 환절기에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이 더 자주 발생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급성 심근경색이나 뇌경색 발생 시 중요한 점은 치료가 최대한 빨리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보통 3시간 이내에 치료되어야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치료가 1시간이 늦어질 때마다 사망률이 약 1% 가량씩 증가한다. 따라서 민간요법이나 한방치료에 의존하느라 시간을 지체하여 중요한 치료시점의 타이밍을 놓쳐서는 안 되며 즉시 큰 병원의 응급실을 찾아야 한다. 또한 동맥경화성 혈관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술, 담배를 절제하고 음식은 싱겁게 골고루 먹으며 채소와 생선을 충분히 섭취하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매일 30분 이상 운동을 하여 적정 체중과 허리둘레를 유지하며 스트레스를 줄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기적으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체크하여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을 치료하는 것이다.





소중한 일자리, 행복한 일자리

본 정보는 고용안정정보망(Work-net)의 구인자료로, 조기에 채용이 완료 될 수 있습니다.  
입사지원자는 『인천종합일자리지원센터』☎ 032) 458-7488, 749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명	모집직종	인원	경력조건	학력	업무능력	근무지(주소)	임금액
강남필터㈜	자동차용 부품조립원	4명	관계없음	학력무관	자동차용 오일필터 부품조립공정에서 제품도장 및 운반	인천광역시 남동구남촌동619-4 8B-10L	일급 36,640원
(주)유니코하이테크	도어록 사상 및 가공	3명	관계없음	고졸이상	전기계폐기 및 디지털도어록 사상 및 가공하는 업무	인천광역시 남동구고잔동642-3 72B-4L	월급 150만원
대성테크	전자부품제조 생산직	4명	경력무관	학력무관	휴대폰 부품 생산라인 단순조립	인천광역시 남동구고잔동 697-10 11L 2층 A-1	시급 4,580원
㈜화진인더스	고무사출성형기조작원	9명	관계없음	학력무관	고무성형기내 고무제품 탈거작업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1동 562-5	시급 5,480원
우수전자산업㈜	제품검사 및 가접원	10명	관계없음	학력무관	제품검사(FPCB외관검사) 및 가접(제품 테이프압착 다리미사용)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 113번길 48번길	시급 4,580원
동명통산㈜	자동차 고무, 플라스틱 사출(주야2교대)	4명	관계없음	고졸이상	자동차 고무, 플라스틱 사출업무, 주야 2교대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1402-2번지	연 1,800만원
㈜비미코리아	단열 및 건축마감재 단순생산직	4명	관계없음	고졸이상	단열재 및 건축마감재 제품 배합, 성형, 이송 등 단순기계조작업무, 운전면허소지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643-15 73B-16L	시급 4,600원
㈜경원유압기계	제관 및 용접원	3명	경력 5년 이상	학력무관	제관 및 용접원(아크, 쇼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713-1 남 동공단 147B-16L	월급 180만원
태도시스템	CNC 선반보조원	6명	관계없음	학력무관	오토클램프 CNC선반보조업무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667-3 95B-4L	월급 180만원
경인환경(주)	음식물 쓰레기 차량운전 및 수거작업	3명	관계없음	학력무관	가정집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 수거(새 벽근무이므로 자차나 인근거주자 우대)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2동 650-48	월급 190만원
세인이너패션	미싱사 및 미싱보조원	4명	관계없음	학력무관	여성숙옷 비비안 란제리 미싱 및 미싱보조업무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7-50 테크노파크 17층	시급 4,580원
남동노인요양센터	요양보호사(주야2교대)	4명	관계없음	학력무관	요양보호업무(주,야 2교대)(주5일근무) (요양보호사1급소지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6동 1077	월급 120만원
㈜에스코리아	공항 고객 수하물품 분류 및 적재업무	5명	관계없음	학력무관	인천공항 승객 물품 적재업무, 근무환경 좋음,자동차운전면허소지자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1 인천국제공항청사	월급 150만원
㈜신성피엔텍	배송 및 납품운전원	2명	관계없음	학력무관	복사용지 납품업무, 운전면허 1종보통 소지자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동 142-1번지	월급 130만원
㈜신진화학	배송 및 납품운전원	3명	관계없음	학력무관	자동차부품 납품 및 배송업무 (자동차운전면허 소지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707-3번지	월급 183만원
㈜프로에스콤	인천공항 특수경비원	5명	관계없음	학력무관	인천공항화물청사 특수경비(주,야,휴무 3조2교대),채용자는 개별특수경비교육무료실시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인천국제공항화물터미널	월급 123만원
씨제이엠디원	CJ제일제당 판매원	4명	관계없음	학력무관	인천관내 마트 CJ제일제당 판매업무 (송도,옥련,계산동)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3가 7-121	일급 50,000원
해주섬유	양말업체 제품관리원	1명	관계없음	고졸이상	양말제품 관리 및 생산업무, 컴퓨터 사용가능자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17-1	월급 120만원
(주)와이지-원	금속절삭가공부품 생산관리원	2명	관계없음	고졸이상	금속절삭가공업체 생산관리업무, 컴퓨터 문자작 성가능자, 금속 및 기계공학 관련 전공자 우대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7-7	연 2,700만원
SB무역	중국무역 운송 및 영업사무원	5명	경력 3년 이상	고졸이상	중국 수출 영업 및 무역 운송관리 업무 (중국어 상급자)	인천광역시 중구 인종로 87	연 2,200만원

- ☞ 인천시에서는 시민의 구인·구직을 돕기 위해 『인천종합일자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458-7470 ~ 7479, 7488, 7494(인천지하철 간석오거리역 5번출구 50m 전방)
- ☞ 저희 센터에서는 7.16(월)~7.20(금) 5년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을 대상으로 취업역량강화프로그램교육을 실시하오니 인천시 관내 적극적인 취업의사가 있는 제대군인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궁금 사항은(☎032-458-7485)로 문의 바랍니다.



물로 오른 인어의 춤

영종도에서 잠진도로 넘어가는 작은 해변에서 동호회의 사진 촬영이 있었습니다. 수평선과 해안선이 아름다운 곳에서 여신과 같은 모델이 음악 맞춰 춤, 아니 포즈를 취해 줍니다. 어느 한 회원은 멋진 장면을 잡기 위해 완전히 몸을 꺾었습니다. 그 사진이 어떻게 나왔을까 궁금해집니다.

박찬영\_시흥시 하중동



보기만 해도 시원하죠?

시청 앞 분수대에서 아빠와 함께 물놀이를 했어요. 보기만 해도 시원하죠? 굳이 멀리 가지 않아도, 가까이(에 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곳이 많답니다.

채가영\_남동구 구월동



새우 아닌 새우깡 먹는 갈매기들

팔미도에 가려고 유람선을 탔습니다. 새우깡을 먹으려고 갈매기들이 따라오더라구요. 좋은 마음이지만, 과거가 갈매기 생태에 좋지 않은 건 잘 아시죠? 앞으로는 조금만 더 생각해주세요.

조귀례\_남구 용현2동



동북아트레이드타워처럼 꿈을 높이 키울래요

아빠 엄마 손잡고 송도센트럴파크로 나들이 갔어요. 내가 너무 어려서 카누는 못 탔지만, 대신 연못가에서 신나게 놀았답니다. 뒤에 보이는 동북아트레이드타워처럼 꿈을 쑥쑥~ 높이 키울래요.

양승우\_남동구 논현동



아름다운 강화 품에서

산, 바다 그리고 섬. 강화도는 참으로 아름다운 땅입니다. 지난 봄 사랑하는 아빠 엄마와 함께 붉게 물든 고려산의 품에 안겼던, 즐거웠던 한때입니다.

신동진\_남동구 간석동

독자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굿모닝인천〉은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잡지입니다. 애정어린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인천을 주제로 한 사진과 글을 받습니다. 인천 풍경에 대한 단상, 인천에서의 추억이 담긴 사진과 함께 간단한 사연(원고지 1매 분량)을 보내 주세요.
- 칭찬하거나 알고 싶은 주변의 이웃을 사진과 함께 소개(원고지 1매)해 주세요

※ 채택된 분께는 문화상품권(1매, 장원은 3매)을 보내드립니다.  
마감은 매월 20일까지 입니다.  
응모하는 분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해야 접수합니다.



보내실곳

우편번호 405-750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 대변인실 〈굿모닝인천〉 독자마당 담당자 앞  
문의 : 440-8305





## 아버지

글, 이영림\_민간외교관협회회장

며칠 전, 친구 아버님의 부음소식을 들어서 일까. 밤에 친정아버지 꿈을 꾸었다. 지난해을 부산 친정에 갔을 때 많이 지치고 힘들어 보이는 아버지의 주름진 얼굴에 마음이 무거웠는데, 그래도 멀리서 온 딸을 보고 웃는 얼굴에는 지난 세월이 하나하나 배어났다.

4남매 중 큰 딸로 태어나 어릴 적부터 유난히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고 살아서인지 지금도 ‘아버지’하면 눈물이 고인다. 늘 엄격하고 조금은 차가운 성격의 어머니에 비해 자상하고 사랑이 많은 아버지는 어릴 적 내 친구였고 든든한 나의 후원자였다.

지금도 생각한다. 학교 때 수학여행을 끝내고 부산역에 도착했을 때 마중을 나오신 아버지의 첫 말씀이 “이 많은 아이들 중에 우리 딸 얼굴만 눈에 딱 들어오네. 역시 우리 딸이 제일 예쁘다.” 그때 난 정말 내가 제일 예쁜 줄 알았다.

결혼식 날 드레스 입고 신부 대기실에 있는 날 보시며 “우리 딸 참 예쁘네.” 라며 눈시울이 붉어지시던 아버지. 그런 아버지를 보며 나도 얼마나 울었는지 화장이 다 지워져 다시 하고 또 하고... 멀리 있다는 핑계로 자주 찾아뵙지도 못하고, 이렇게 늘 죄송한 마음으로 산다. 젊고 멋있던 아버지도 세월의 무게는 피하지 못하고, 이젠 멀리 있는 딸 전화 한 통에도 감동하는 힘없는 노인으로 변하셨다. 아버지와와 전화 통화가 끝나면 난 으레 붉어지는 내 눈을 숨기느라 바쁘다.

작년 여름, 젊은 사람도 어렵다는 디스크 수술을 받고 힘들어 하시던 아버지. 그런 아버지를 옆에서 돌보느라 더 힘들어 하시던 어머니. 두 분을 지켜보던 난 마음속에 흐르던 눈물을 빗물 속에 감추어야 했다.

이 여름... 또 한 해가 가는 게 서러운 것은 내 나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이 드신 부모님과 함께 할 시간이 짧아지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내 생활이 우선이라는 못된 이기심 때문에 이렇게 불효를 하면서 산다. 나중에 얼마나 후회를 하려는지...

“아버지, 지난 밤 꿈속에 당신은 아직도 멋있고 다정다감한 분이셨습니다. 늘 건강하게 우리 곁에 계시리라는 자식들의 못난 생각으로 이렇게 세월이 갑니다. 아직 해 드릴게 많으니 건강 잘 돌보고 즐겁게 지내세요. 이번 여름에도 이 큰 딸과 뜨거운 포옹으로 만나야죠. 멋진 밤바다 함께 거닐며, 아버지가 좋아 하는 노래 많이 불러 드릴게요.”

오늘은 아버지 좋아하시는 해바라기 노래를 집안 가득 틀어 놔야지. 진한 커피 한잔 마셔야겠다.

### 가슴에 새긴 한 구절

‘言不中理(언부중리)면 不如不言(불여불언)  
말이 이치에 맞지 않으면 말하지 않는 것만 못하다.’

건전한 논쟁은 상호 발전을 위해 좋은 일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논쟁을 위한 논쟁, 내편과 남의 편을 가르고 시비를 가리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차라리 어느 한편을 편들기보다 침묵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더불어 말할 수 있는 사람인데도 말하지 않으면 사람을 잃는 것이요, 더불어 말하지 못할 사람인데 말하면 말을 잃는 것이다’라는 옛말이 있다. 서로 의기투합하고 이치에 맞으면 얼마든지 소통할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 소모적인 논쟁을 할 필요가 없다.



## 그녀에게 S라인을 허<sup>許</sup>하라

뒷동산 숲에 불어오는 바람,  
곰게 풀 먹인 모시 저고리 속으로 스며드는 바람,  
물방울 양산을 살랑살랑 스치는 바람...  
그 모든 바람 보다 그녀는 무병장수의 바람(바람)을 꿈꾼다.  
오늘은 그녀의 남은 삶 중에서 가장 젊은 날이다.  
불노(不老)는 노망이 아니라 ‘로망’이다.

(동구 송림동 수도국산 배수지공원에서)

글 · 사진 유동현\_본지편집장